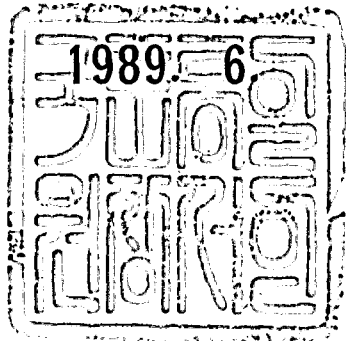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 及 南北體育會談 關聯

雙方 主要發言 對比



國 土 統 一 院
南 北 對 話 事 務 局

目 次

1. 會談意義・姿勢 및 原則問題	63
2. 會談議題問題	68
3. 南北單一팀 構成方案	69
가. 選手團 呼稱	69
나. 選手團 團旗	78
다. 選手團 團歌	85
라. 選手團 構成	86
마. 選手團 團服	89
바. 選手選拔	96
사. 選手訓練	110
아. 選手團 身邊安全保障	113
자. 選手團 經費	114
차. 南北單一팀 推進機構 構成	115
카. 其他事項	116

本冊子는 1989年上半期에 進行된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第1次~第2次) 및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南北體育會談(第1次~第2次)
에서 雙方間에 論議된 主要 發言內容을 各 會談別 會議錄에
서 拔萃하여 對比한 것임.

< 凡 例 >

雙方 發言 아래 괄호내의 表記는 出處임.

(2 - 基調 - 100) : 第2次會談 - 基調發言 - 會議錄 100 페이지

I.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第1次～第2次）	3
II.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南北體育會談（第1次～第2次）	59
附錄：會談別 雙方 提案文	117

I.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

(第1次~第2次)

目 次

1. 會談意義	7
2. 會談姿勢 및 雰圍氣問題	8
3. 本會談 名稱問題	23
4.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27
5. 本會談 開催日時 및 場所問題	29
6. 本會談 議題問題	30
7. 本會談 運營・節次問題	34
8. 팀스피리트訓練問題	36
9. 豫備會談 公開問題	57



1. 會談意義

우 리 측	北 측
<p>오늘날 世界는 한 時代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轉換點에 서 있음.</p> <p>冷戰體制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韓半島에서도 이제 現實認定과 信賴構築,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努力이 본격화 되어야 함.</p> <p>그것은 時代를 前進시키는 本質的 흐름이며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한 흐름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民族統一의 새 歷史를 創造하는 힘차고도 큰 흐름으로 될 것은 確實함.</p> <p>그런 뜻에서 오늘 南北의 當局 代表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相互間의 關係改善 問題를 論議하게 된 것은 매우 意味있는 일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0)</p> <p>南北雙方의 政府當局이 서로를 尊重하고 協力하며 繁榮을 위해 努力하는 것은 民族의 和合과 發展을 위해 信賴를 심는 빼놓을 수 없는 過程인 것임.</p> <p>南北 政府當局間에 이러한 信賴關係가 定着된다면 平和統一 實現의 基礎가 마련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1)</p>	<p>이번에 貴側이 늦게나마 우리의 發起에 呼應해 나섬으로써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이 열리게 된 것은 劃期的인 意義를 가지는 事態發展으로 됨.</p> <p>이제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 問題를 責任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雙方의 政治實權者들과 軍事實權者들이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民族的 和解의 첫걸음으로 될 것이며, 雙方이 同族으로서 서로 理解하고 讓步하는 자세에서 問題討議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임.</p> <p>참으로 北과 南이 政治, 軍事 實權者들의 會談을 實現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民族의 重大事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15)</p>

2. 會談姿勢 및 霧圍氣問題

우 리 側	北 側
<p>우리가 미소나 짓고 악수나 하고 헤어지고 하는 무의미한 對話가 아니라 우리겨레에게 希望을 주고 기쁨도 주고 열매도 안겨주는 이런 生産的인 對話가 되어야 함.</p>	<p>은 民族이 지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 豫備會談을 착실하게 잘해서 本會談도 빨리 開催하고 그러고 成果的으로 本會談을 進척시킬 수 있는 確固한 基礎를 마련해야 할 것임.</p>
<p>이번 會談이 성사가 잘되고 원만히 進行되어 總理들이 만나는 것도 멀지않아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期待함.</p>	<p>(1 - 歡談 - 11)</p>
<p>(1 - 歡談 - 8)</p>	<p>우리들의 豫備會談이 좋은 霧圍氣속에서 순조롭게 進行되어 빠른 시일안에 北과 南사이의 當면한 政治軍事的 對決 狀態를 해결하기 위한 本會談이 成果的으로 開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함.</p>
<p>우리는 지난 40여년 동안 한 겨레이면서도 戰爭과 對立과 葛藤을 지속함으로써 建設과 繁榮에 쏟아야 할 民族力量을 浪費해 왔음.</p>	<p>(1 - 基調 - 16)</p>
<p>우리는 이와 같은 消耗的 對決을 하루빨리 止揚하고 生産的이고 建設的인 方向으로 나아가 우리 民族의 우수함을 世界에 誇示하여야 함.</p>	<p>北과 南은 어떻게 하나 모처럼 마련된 이 豫備會談을 성공으로 이끌어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하루빨리 誕生시켜야 할 것임.</p>
<p>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誹謗하고 中傷하면서 民族自尊을 毀損시켜온 일부터 中止하여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를 尊重해야 함.</p>	<p>그러자면 무엇보다 對話에 有益한 團合의 霧圍氣, 平和의 霧圍氣를 마련해야 함.</p>
<p>이것은 南北間에 좋은 霧圍氣를 造成하</p>	<p>北과 南의 相對方을 刺戟하고 情勢를 긴장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不信을 助長하고 衝突을 誘發하여 對話에 難關을</p>

우 리 側	北 側
<p>고 關係改善을 이룩하는데 必須的인 것이 며 어느 일방만이 아니라 반드시 相互的 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임.</p> <p>(1 - 基調 -32)</p>	<p>造成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함.</p> <p>(1 - 基調 -19)</p> <p>對話는 어디까지나 信義에 기초해서만 성과적으로 진척될 수 있고 좋은 結實을 맺을 수 있음.</p> <p>信義에 기초하지 않는 대화는 誤解와 不 信을 낳고 대화 자체가 對決의 舞臺로 이 용될 뿐임. 對話雙方이 信義있는 對話 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안팎이 다르다는 疑 惑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p> <p>앞에서는 서로 마주앉아 웃는 낯으로 대 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상대방을 敵對視 하는 행동을 한다면 對話自體가 무의미하 게 될 것임.</p> <p>一面對話, 一面對決의 자세를 가지고 대 화에 임할 때 信義있는 對話를 할 수 없 고 緩和와 平和, 統一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시기의 北南 對話過程이 實證해 준 엄연한 사실임.</p> <p>(1 - 基調 -22)</p> <p>貴側 當局도 最近에 와서 「民族共同體」</p>

우 리 側	北 側
	<p>意識에 대하여 적지 않게 말하면서 「北의 實相을 開放」하겠다고 하고 있음.</p> <p>우리는 그에 대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p> <p>그러나 유감스럽게도 貴側當局은 實際行動에서는 北의 現實을 그대로 알려는 南朝鮮人民들의 志向을 공공연하게 억누르고 있을뿐 아니라 얼마전에는 北의 出版物들을 出版普及하였다 하여 冊字들을 대량 押收하고 出版을 停止시키고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연행하였음.</p> <p>이것은 和解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現情勢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貴側의 말과는 어긋나는 것임.</p> <p>우리는 이것이 對話相對方에 대한 옳은 姿勢가 못될뿐만 아니라 民族的으로도 온당한 일이 되지 못한다고 認定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5)</p> <p>貴側이 北의 實相을 소개한 冊字들을 무작정 押收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時代錯誤의인 對決觀念에서 出發한 것으로서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바라는 온 겨레의 志</p>

우 리 측	北 측
<p>豫備會談 代表들의 任務는 雙方總理들이 만나는데 必要한 諸般 節次問題를 論議하는 것임.</p> <p>貴側에서 이야기한 팀스피리트 問題라든가 무슨 우리側의 書籍處理 問題라든가 이런 것은 節次問題를 論議하는 것과는 直接 關聯은 없는 것임.</p> <p>그런 것을 여기에서 자꾸만 되풀이해서 거론하는 것은 總理會談을 빨리 成事시키겠다는 우리의 취지와 또 우리 豫備會談代表들에게 부여된 任務나 使命에 비추어 봐서도 적당치 않음. 그러니까 빨리 節次問</p>	<p>向에도 逆行하고 北南對話를 和解의 雰圍氣속에서 순조롭게 진전시켜 나가는데도 좋지 않은 後果를 가져오는 處事가 아닐 수 없음.</p> <p>우리는 對話一方으로서 貴側이 北半部를 紹介한 出版物들을 押收하고 出版을 中止시키고 거기에 관계 하였던 사람들을 連行해가는 부당한 行동을 當장 中止해야 한다고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6)</p> <p>우리의 圖書들의 出版과 普及을 탄압하는 問題 역시 우리가 對話相對方을 刺戟하는 이런 問題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對話를 잘하자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됨.</p> <p>그건데, 지금 對話를 하면서 對話相對方인 우리의 思想을 탄압하고 우리의 思想을 申奉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그리고 우리 圖書들을 出版해 普及하는 걸 抑制하고, 이는 貴側의 內部問題만이 아님.</p> <p>우리가 이제 對話를 互相 信義에 기초해서 互相 尊重하고 이런 原則에서 해나가자면 상대방을 刺戟하는 일이 없어야 됨.</p>

우 리 측	北 측
<p>題를 協議하는 것이 좋겠음.</p> <p>(1 - 討議 -36)</p> <p>豫備會談과 別로 관련되지 않는 事項들을 가지고 또 이것을 먼저 前提條件化하다시피 한다고 하면 70年代나 過去 80年代 중반까지의 對話姿勢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겠는가?</p> <p>우리는 過去와 같은 姿勢를 止揚하고 좀더 前向的이고 伸縮的이고 誠實하게 하는 立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問題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p> <p>(1 - 討議 -36)</p> <p>우리 豫備會談 代表들에게 부여된 任務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討議를 進行하자, 그렇게해야 원만히 會談을 타결할 수 있고 또 總理會談을 빨리 成事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p> <p>(1 - 討議 -37)</p> <p>서로 和解하고 團合하기 위해서는 할 말도 접어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課題</p>	<p>(1 - 討議 -35)</p> <p>총포소리를 끊는게 對話의 霧圍氣를 造成하는 것이고 統一의 障碍를 除去하는 것임.</p> <p>우리가 이 豫備會談段階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겠는가, 그렇게 하자면 우선 對話 霧圍氣를 잘 造成하는 것이 중요함.</p> <p>우리 지난시기 北南對話 經驗을 놓고봐도 그렇고 또 國際舞臺에서 進行된 여러 가지 雙務的인 對話라든가 多務的인 對話에서도 이 對話의 霧圍氣, 對話를 잘 進전시킬 수 있는 條件을 造成하는 問題가 아주 重要하다는 것임.</p> <p>(1 - 討議 -39)</p> <p>紛爭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이와같은 對話일수록 그를 위한 條件과 霧圍氣를 잘 造成해야 우리가 이 對話에서 소기의 結實을, 成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貴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함.</p> <p>(1 - 討議 -40)</p>

우 리 側	北 側
<p>들에 충실한 것이 좋겠음.</p> <p>우리도 할말이 많이 있음. 그러나 그 건 다 접어두고 우리 民族이 解決해야 될 현실적인 問題들을 重視해가지고 이렇게 對話에 나온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38)</p> <p>對話를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慣例上으로 會談하기 전에 相對方이 받아들이기 힘든 問題를 가지고 前提條件으로 이렇게 討論해도 되는 건지 나는 理解가 안된다는 걸 먼저 말하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南北間에 충을 같이 맞대고 하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좋은 霧圍氣를 만들기 전에 어찌 대화가 되겠느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48)</p> <p>霧圍氣問題와 關聯해서 45年이후에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지만 相互 相對方을 尊重하는 原則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론안할 뿐임. 우리는 이렇게 힘든</p>	<p>지금 그 節次問題를 討論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음.</p> <p>實務節次問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討論하는 건가, 會談을 위해서 討論하는 건데 그 앞에 造成된 障礙를 除去하는 問題 그거는 別途의 問題도 아니며 또 同時에 이 會談과 關聯이 없는 問題도 아님.</p> <p>對話霧圍氣가 造成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3)</p>

우 리 측	北 측
<p>것부터 解決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軍事的 信賴問題, 例를 들어서 貴側에서도 제 의했습니다만, 直通電話를 設置한다든가 非 武裝地帶를 停戰協定대로 原狀復歸시킨다든 가 이런 쉬운것부터 함으로써 좋은 雰圍氣 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임.</p> <p>(1 - 討議 - 48)</p> <p>南北間은 40 餘年間 분명히 對峙된 實 體로서 存在하고 있음.</p> <p>이것을 서로 認定을 하면서 相對方이 무 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너는 이 것을 하면 안된다, 對話를 하는데 이렇 게 하라는 것은 對決의 問題를 如何히 解決하느냐 하는, 對話에 障礙만을 주는 것 임.</p> <p>(1 - 討議 - 61)</p> <p>和解와 相互尊重 그리고 對話를 통해서 뭔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相對가 既存에 가 지고 있는 實體를 무시한 채 어떤 條件으로 내 세워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事實로서 받고</p>	

우 리 側	北 側
<p>이러한 問題들을 南北間 總理會談, 高位當局者會談을 열어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豫備會談에 앉아서 어떤 特定事案을 놓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하는 것은 對話를 하려는 자세가 아님.</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2)</p> <p>貴側은 주어진 基本任務에서 벗어나며 會談性格에도 맞지 않는 팀스피리트 訓練 中止問題 등 이런 저런 條件들을 내세워 節次問題 討議를 拒否하고 會談을 空轉시켰음.</p> <p>會談을 열어놓고 實質問題 討議를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條件을 내세워 시간을 浪費하는 것은 올바른 會談態度가 아니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2)</p> <p>貴側이 이번 會談부터는 격에 맞지도 않는 條件들을 내세워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온 겨레가 念願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조속한 實現을 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節次問題 討議에 임</p>	<p>對話에 역행하는 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진실로 對話를 하자는 立場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情勢를 침예화시키는 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緩和에 關心이 있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지, 또한 眞正으로 民族의 運命에 대하여 責任지려는 姿勢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深思熟考 해보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9)</p> <p>雙方이 對話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立場이 명백해야 함.</p> <p>우리들의 立場에서는 우선 對話나 對決이나 하는 점에서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함.</p> <p>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 팀</p>

우 리 側	北 側
<p>할 것을 促求하는 바임.</p> <p>(2 - 基調 - 12)</p>	<p>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명백히 北南 對話와 兩立될 수 없는 對決政策의 產物 임.</p> <p>對話는 어디까지나 民族的 團合과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對話이며 우리 民族의 앞날에 有益한 새로운 肯定的인 局面을 마련하기 위한 對話임. 만일 우리가 지난 날처럼 계속 對決과 戰爭의 不安속에서 살자고 한다면 固태여 對話를 할 意義가 없는 것임.</p> <p>따라서 對話를 하자고 하면 對決의 姿勢를 버려야 할 것이며 對決을 하자고 하면 對話를 그만두어야 할 것임.</p> <p>(2 - 基調 - 20)</p> <p>結論的으로 말하여 對話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眞實히 要望되는 것은 對決의 立場이 아니라 對話의 立場이며 戰爭의 立場이 아니라 平和의 立場이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첫자리에 놓고 생각하는 民族自主的인 立場임.</p> <p>(2 - 基調 - 23)</p>

우 리 側	北 側
<p>지난 1次會談때 우리 會談光景을 지켜 보았던 內外記者들과 그리고 또 1次會談 結果를 報道를 통해서 전해들은 우리 國民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貴側이 對話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또 이 會談場을 어떤 宣傳을 위한 마당으로 利用하려는 그와 같은 態度를 보인데 대하여 매우 失望하고, 또 그와 같은 北側과 마주 앉아서 會談을 해서 무슨 成果가 있겠느냐, 南北關係進展에 무슨 成果가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懷疑를 나타냈음.</p>	<p>宋先生이 이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宋先生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함.</p>
<p>그리고 南北間에 最近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던 그 物資交流, 그리고 우리 鄭周永會長이 北側을 訪問해서 貴側하고 金剛山共同開發計劃을 合意보고 나온후에 南北關係改善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졌던 우리 國民들도 貴側의 그와 같은 態度를 보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또 貴側에 대해서 아주 不信을 심화시켰음.</p>	<p>우리가 提起한 問題는 그것이 會談과 관련이 없는 問題가 아니라 會談을 위해서 요구되는 問題고 또 그것이 會談外的인 問題가 아니고 이 會談을 위해서 제기되는 原則的인 問題임.</p>
<p>우리는 또 다시 겨레에게 失望을 줘서 안되겠고, 우리 南北關係를 이런 不信의 높으로 後退시켜서도 안된다고 생각함.</p>	<p>그런데 宋先生은 語不成說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宣傳場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느니 우리 會談立場이 어떻다느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會談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反問을 해야 옳은 그런 問題인데, 오히려 宋先生이 지금 거꾸로 우리의 會談姿勢 때문에 1次會談이 空轉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제기된 이 原則的이고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公明正大한 그런 提案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시 이 2次會談場도 무슨 宣傳場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그것은 매우 合當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함.</p>
<p>(2 - 討議 - 28 ~ 29)</p>	<p>그래서 우선 이 會談을 할려고 하는 그</p>

우 리 側	北 側
	<p>런 立場과 姿勢를 보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議題問題 討議,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앞서서 우리가 緊急提案으로 내놓은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答辯을 주었으면 함.</p> <p>(2 - 討議 - 31 ~ 32)</p> <p>어떻게 貴側이 外國軍隊와 함께 우리를 攻擊하기 위한 이런 도발적인 危險한 戰爭騷動을 벌이면서 우리보고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對話를 하자고 하는지 이것은 論理에도 맞지 않음.</p> <p>그래서 貴側이 이 會談에 관심이 있고 또 이 會談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會談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가 提起한 이 3개 項目의 緊急提案에 대해서 合意를 주어야 됨.</p> <p>(2 - 討議 - 34)</p> <p>우리가 지난번 豫備會談때 명백히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팀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를 提起한 것은 사실상 우리 對話앞에 가로놓인 嚴重한 障礙를 除去하자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임.</p>

우 리 側	北 側
<p>첫째 質問은 이 會談이 팀스피리트 中止와 相關한 會談인지 아니면 南北高位當局者會談 節次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인지 이것을 貴側에서 분명히 立場을 밝혀 달라는 것임.</p> <p>두번째는 이 3 個項의 緊急提案에 대해 우리側이 만약에 명백한 어떤 態度를 提示한다든지 立場을 밝히지 않는다면 節次問題는 오늘도 討議할 수 없는 것인지?</p> <p>이 두가지 點에 대해서 우선 質問을 하</p>	<p>이것은 南側이 말로는 對話를 하자고 하면서도 行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 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는데 이 것은 너무나도 應當한 歸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임.</p> <p>그러기 때문에 이와같이 應當한 問題를 提起했는데 그에 대해서 마치 豫備會談과 는 관련이 없는 問題처럼 舉論하시는데 이 것은 이 對話를 실시하자는 자세인가 하 는 問題에서 오히려 우리側이 疑心하지 않 을 수 없는 이와같은 形편에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37 ~ 38)</p> <p>무엇때문에 北과 南사이 對決關係를 止 揚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왜 對決을 고취하 는 이와같은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하지 못 하는가?</p> <p>바로 우리 緊急提案은 對話의 雰圍氣를 잘 造成하고 그 成果를 擔保할 수 있는 最善의 要求와 方途가 담겨져 있는 것임.</p> <p>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緊急提案에 대 한 貴側의 立場과 見解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명백한 對答을 해 줄 것을</p>

우 리 側	北 側
<p>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왜 우리가 威脅을 받고 있는지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음.</p> <p>(2 - 討議 - 35 ~ 36)</p>	<p>期待하는 것임.</p> <p>그렇게 하고 이제 質問한 이 問題는 내가 質問한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態度를 표시한다면 다 풀릴 수 있는 問題이고, 또 내가 이제 설명한 거기에는 두 가지 質問에 대한 우리 立場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임.</p> <p>(2 - 討議 - 39)</p>
<p>이 會談이 어떻게 팀스피리트訓練 中止 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會談인가? 그것이 우리의 議題, 本 任務인가?</p> <p>그러니까 요는 前提條件인가 아닌가 분명히 이야기해주길 바람. 前提條件인가, 아닌가?</p> <p>거기에 대해서 討議를 한다든지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른 節次問題 討議를 못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라 이것임.</p> <p>(2 - 討議 - 40 ~ 41)</p>	<p>팀스피리트 89를 中止하라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나 줘야 내가 너에게 하나 주겠다, 이런 바꿈새가 아니고 이 會談自體를 위해서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는 가장 先決問題임.</p> <p>그렇다면 이 問題가 前提條件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貴側이 自體로서 判斷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함.</p> <p>(2 - 討議 - 41)</p>
<p>팀스피리트는 우리 內部問題로서 自衛를 위한 自救策으로 하고 있는 것임. 우리 側 內部問題를 가지고 貴側에서 對話를 하</p>	<p>貴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撤回하는 것이 前提條件인가?</p> <p>그리고 또 동시에 貴側에서 이 팀스피리트 - 89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를 우리</p>

우 리 側	北 側
<p>기도 전에 前提條件으로 내세워 놓고, 이거는 안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하는 前提條件下에서는 對話를 해 나갈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45)</p> <p>그러면 우리가 前提條件으로서 이 會談을 하기전에 貴側에 이러한 방대한 공격형 軍事力을 減縮해라, 減縮하기 전에는 우리는 對話할 수 없다고 하면 貴側은 받아들일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63)</p>	<p>가 撤回을 안하면 會談을 안하겠다는 것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66)</p> <p>誠實性은 雙方對話에서 견지해야 될 初步的인 要求임. 또 雙方會談의 成果를 담보하는 根本立場이고 條件임. 그런데 貴側에서는 이 會談앞에서 誠實性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제 그 問題에 대해서 얘기하겠음.</p> <p>첫째로 貴側은 對話앞에 커다란 障礙物로 되는 ทัพ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할 데 대한 對話 一方의 要求를 完全히 外面하고 있고, 無視하고 있음.</p> <p>둘째로 貴側은 對話一方의 要求를 받아들이지는 고사하고, 반대로 挑發的으로 우리를 刺戟하고 威脅하는 일을 強化하면서 露骨的으로 이 對話를 否定하고 있음.</p> <p>셋째로 貴側의 行動은 自身이 보아도 어긋나며 그것을 뒤집어 얹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67 ~ 73)</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은 애당초 이 會談을 할 생각이 없었고 輿論에 못이겨서 이 會談앞에 나왔지만 이 會談을 가로막기 위해서 意圖的으로 計劃的으로 障礙를 造成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음.</p> <p>그 根據가 있음. 貴側에서는 전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것은 本會談에서 討論할 問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貴側에서 우리에게 提案한 本會談의 實務節次 問題를 檢討한데 의하면 貴側에서는 軍事的 信賴構築問題를 다른 提案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거기에는 大規模 軍事訓練 中止問題와 같은 특히 合同軍事演習 中止問題와 같은 것은 일언반구도 言及이 없음. 이것은 貴側이 애당초 이 會談에 생각이 없었고 會談에 應해 나왔지만 할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게 아닌가, 이걸 疑心하지 않을 수 없게 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72)</p>

3. 本會談 名稱問題

우 리 側	北 側
<p>本會談 名稱問題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고 간 便紙를 통해서 貴側이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고 한 바 있음.</p> <p>그러나 우리側으로서는 本會談이 雙方 總理를 비롯한 高位當局者들이 마주 앉아 會談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히 政治・軍事的 問題만으로 局限해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相互間의 交流・協力과 信賴構築 등 다양한 懸案問題들이 討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p> <p>그러나 名稱問題를 가지고 오랜 時間을 浪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雙方 立場을 다 함께 考慮하여 「南北總理會談」으로 決定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31)</p> <p>나는 本會談의 名稱에서 雙方間 다소 意見差異가 있기는 하지만은 本會談을 반드시 成事시키겠다고 하는 大局的 觀點에서 問題 解決에 임한다면 쉽게 解決될 수 있으리라고 確信함. (1 - 討議-34)</p>	<p>당면한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討議・解決하기 위한 北南高位級 會談은 雙方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期調 - 16)</p>

우 리 측	北 側
<p>이 問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言及한 바와 같이 本會談이 雙方 總理를 비롯한 高位當局者들이 마주앉아 會談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한 政治·軍事問題만으로 議題를 局限해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南北間의 交流·協力 實施問題 등 다양한 懸案 問題들이 폭넓게 討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3)</p>	<p>一般的으로 會談名稱問題는 會談의 使命과 會談의 고유한 特徵에 맞게 規定하는 것이 常例로 되고 있음.</p> <p>말하자면 어떠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會談인가 하는데 따라 會談名稱이 規定되는 것임.</p> <p>우리가 마련하려는 本會談은 北南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問題, 특히는 統一 問題 全般을 討議하기 위한 會談이 아니라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的 및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사명을 지닌 會談이며 北과 南의 高位級 政治·軍事 實權者들이 參加하는 會談임.</p> <p>그러므로 우리가 마련하는 本會談의 名稱은 雙方의 高位政治實權者들과 軍事實權者들이 參加하는 당면한 北南사이의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 問題를 討議 解決하는 本然의 使命에 부합되게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라고 呼稱해야 마땅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25)</p>

우 리 측	北 측
<p>貴側이 南北間의 交流・協力과 離散家族 問題 解決 등을 反對하지 않는 이상, 굳이 「政治・軍事會談」이라는 제한된 名稱을 고집할 理由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側이 提議한대로 그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으로 하자는데 대해 쉽게 同意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3)</p>	<p>本會談을 이렇게 呼稱하는 것은 會談이 마련되게 된 經緯를 놓고 보아도 合理的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우리는 이미 1987年 1월에 우리側 政務院 總理와 人民武力部長의 명의로 貴側 總理와 國防部長官에게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할 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고 지난해 11월에 包括的인 平和方案을 제시하면서 우리側 政務院 總理의 名義로 貴側 總理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가질 것을 提議하는 편지를 보냈음.</p> <p>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積極的인 誠意와 努力에 貴側이 應해 나섬으로써 오늘의 豫備會談도 마련되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25 ~ 26)</p> <p>團長의 級數에서 우리側이 副總理를 단장으로 제의한데 대해 貴側이 總理를 首席代表로 수정제의하여 雙方이 合意에 도달한것만큼 會談名稱에 「總理를 團長으로」한다는 것을 添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p> <p>貴側의 意見과 같이 本會談 名稱을 「南</p>

우 리 側	北 側
<p>本會談 名稱問題와 관련해서 우리는 「南 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우리가 讓步를 해 서 절충안으로서 「南北總理會談」으로 하 자 고 그랬음.</p> <p>이것은 별 어려움이 없이 妥結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함.</p> <p>우리가 이미 讓步하는 절충안을 냈으니 만큼 貴側에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 다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0)</p>	<p>北高位當局者會談」이라고 하면 무슨 問題 를 討議・解決하는 어떤 性格의 會議인지도 명백치 않음.</p> <p>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本會談 名稱을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政治軍 事會談」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6)</p>

4.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우 리 측	北 측
<p>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軍參謀總長級을 包含하는 7名의 代表로 構成하고 40名의 隨行員과 50名의 報道陣을 帶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p> <p>(1 - 基調 - 32)</p>	<p>代表團은 각기 7명으로 構成하며 團長은 總理가 함.</p> <p>代表團에는 軍實權者를 2名程度 包含시킴. 會談保障을 위한 隨員은 각기 20名으로함. 會談取材記者는 50名으로 함.</p> <p>(1 - 基調 - 16 ~ 17)</p>
<p>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7名의 代表로 構成하고 50名의 報道陣을 대동한다는데 雙方이 意見을 같이 하고 있음.</p>	
<p>다만 雙方間에 見解差가 있는 것은 (1) 代表團 7名중 우리側이 軍參謀總長級 1名을 包含하자고 한데 대해 貴側이 軍實權者를 2名정도 包含시키자고 한 사실과 (2) 隨行員 數를 우리側이 40名으로 한데 대해 貴側은 20名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 점임.</p>	
<p>우선 軍代表에 대하여 「軍實權者」라는 恰當한 表現을 쓸 것이 아니라 「軍參謀總長級」이라고 明示하여 그 級을 분명히 밝혀야만 서로 不必要한 混亂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 數도 우리側은 1名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p>	

우 리 側	北 側
<p>隨行員 數에 있어서는 總理를 비롯한 雙方 高位當局者들이 만나 여러가지 懸案 問題들을 폭넓게 討議해야 하는 會談인 만큼 40名 정도의 實務者들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14)</p> <p>代表團 構成問題에 있어서도 우리는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軍參謀總長級을 包含하는 7名으로 하자고 그랬고 貴側도 7名으로 하자고 하면서 다만 軍實權者 2名 정도로 했는데 이걸 뭐 별 問題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30)</p> <p>記者團을 50名으로 하자는데에는 똑같고 隨行員數에는 우리는 40名으로 하자고 그랬고 貴側은 20名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쉽게 妥結이 될 수 있을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30)</p>	

5. 本會談 開催日時 및 場所問題

우 리 측	北 측
<p>本會談은 豫備會談 종결이후 1個月이내에 開催함.</p>	<p>會談은 本 豫備會談이 끝난 때로부터 1個月안에 시작함.</p>
<p>本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되 第1次 本會談은 서울에서, 第2次 本會談은 平壤에서 開催함.</p>	<p>會談場所는 平壤과 서울로 하되 엇바꾸어가면서 정하며 第1次 會談은 平壤에서 함.</p>
<p>(1 - 基調 - 32)</p>	<p>相對側 地域에서의 滯留日程은 3泊 4日로 하되, 必要한 경우에 合意에 따라 滯留期間을 調節할 수 있음.</p>
<p>本會談의 開催日時は 『豫備會談 종결이후 1個月以內에 開催한다』는데 대해 雙方이 意見を 같이 하고 있고 또 場所問題에 있어서도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가게 취한다』는데 서로가 同意하고 있음. 다만 第1次 本會談을 서울과 平壤중 어느 곳에서 開催하느냐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 側으로서는 貴側 代表團이 먼저 서울을 訪問할 것을 正중히 提議하는 바임.</p>	<p>(1 - 基調 - 16 ~ 17)</p>
<p>(2 - 基調 - 14)</p>	
<p>場所問題도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가면서 開催하자 하는데서는 같은 意見이고 다만, 1次會談을 어디에서 하느냐, 서울에서 하느냐, 平壤에서 하느냐인데 이것도 역시 쉽게 合意되리라고 생각함. (2 - 討議 - 30)</p>	

6. 本會談 議題問題

우 리 측	北 측
<p>南北間에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實施하는 것은 高질적인 對決關係를 協力構造로 轉換하는데에 때놓을 수 없는 措置임.</p> <p>우리는 交流・協力の 實施와 함께 軍事分野에서도 信賴構築을 위한 措置들이 講究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함.</p> <p>南北間의 和解와 協力を 더욱 促進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되어야 하며 이점은 貴側도 否認하지 않고 있음.</p> <p>南北頂上會談이 開催되면 民族의 장래문제인 統一實現問題와 不可侵宣言을 비롯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可能케 하는 制度的 裝置 및 軍備縮小 등 軍事問題를 包含한 雙方이 提起하는 모든 問題를 진지하게 論議하고 妥結할 수 있을 것임.</p> <p>(1 - 基調 - 32 ~ 33)</p> <p>本會談 議題를 다음과 같은 6개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함.</p> <p>① 相互 誹謗・中傷中止 問題</p> <p>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 問題</p> <p>③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 問題</p>	<p>會談議程은 「北과 南사이의 當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함.</p> <p>(1 - 基調 - 16)</p>

우 리 측	北 측
<p>④ 軍事的 信賴構築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高位軍事當局者間的 直通電話 架設 •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 및 平和的 利用 • 軍人士의 相互交流 • 大規模訓練의 事前通報 및 參觀招請 <p>⑤ 南北頂上會談 開催 問題</p> <p>⑥ 기타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33)</p> <p>本會談의 議題가 可能한 限 細分化되어 보다 具體的으로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本會談을 効率的이고 建設的이며 生産的으로 運營할 수 있다고 생각함.</p> <p>만약 貴側이 主張한대로 單一議題로 한다면 本會談에서 다시금 議題問題를 討議· 合意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임.</p> <p>南北의 總理들이 서로 서울과 平壤을 오가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밖에 會談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細部議題를 討</p>	<p>豫備會談에서 本會談 議程을 어떻게 제기하고 합의하는가 하는 問題는 本會談의 成果與否에 影響을 주는 것은 물론 그에 앞서 本會談을 빨리 마련하는가 지연시키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問題로 됨.</p> <p>우리는 9年前 1980年初에 雙方 總理接觸을 가질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9차례나 進行하였지만 議程 問題를 합의하지 못하여 결국 總理接觸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던 과거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6)</p>

우 리 側	北 側
<p>議・合意해야 한다는 것은 非生産的이며 非能率的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p> <p>따라서 나는 貴側이 우리側에서 내놓은 6個項의 具體的인 議題에 同意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5)</p>	<p>本會談議程은 本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맞게 정하면서도 問題討議를 進行하는데 지장이 없게 간결하게 定立해야 됨.</p> <p>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貴側에서 내놓은 議程들은 個別的으로도 그 妥當性 與否를 檢討할 여지가 있지만 우선 너무 細部化되고 있음.</p> <p>지금처럼 議程을 6個項으로 만들고 4번째 항의 경우에는 細部條項까지 規定해놓은 狀態에서는 도저히 合意點에 도달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p> <p>會談代表團이 낮은 級도 아니고 雙方總理를 단장으로 하는 高位級代表團인것 만큼 議題를 폭넓게 討議할 수 있도록 包括的으로 設定해야지 지나치게 細部化하면 거기에 발목이 묶여 應當 協議解決할 問題도 討議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음.</p> <p>豫備會談을 빨리 結束하고 本會談을 마련하자면 議程을 複雜하게 細部化할것이 아니라 여유있게 包括的으로 設定하는 것이 妥當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6 ~ 27)</p>

우 리 側	北 側
<p>議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相互 誹謗中 傷中止 問題」 등 6개항을 냈고 貴側은 單一案으로서 「北과 南사이에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할데 대하여」이렇게 하고 이 議題대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볼때는 우리가 貴側에 提案한 議題는 貴側이 昨年 11月 16日 提案했던 議題하고 공통점이 많고 또 우리가 貴側이 提案했던 議題를 많이 受容했기 때문에 우리 議題를 중심으로 해서 討議하면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合意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1)</p>	<p>우리가 제기한 議程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할데 대하여」는 會談의 使命과 우리 나라의 現實的 要求에 맞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雙方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하여 서로 基本的 諒解가 이루어진 것임. 이런 議程밑에는 本會談에서 問題를 討議하는데 아무런 障礙도 없을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7)</p>

7. 本會談 運營・節次問題

우 리 측	北 측
<p>《會談公開 與否》</p> <p>本會談의 進行은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 되 雙方合意에 따라 公開로도 할 수 있음.</p> <p>(1 - 基調 - 33)</p>	<p>《會談公開 與否》</p> <p>會談은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할 수 있음.</p> <p>(1 - 基調 - 17)</p>
<p>《儀典問題》</p> <p>儀典問題는 雙方 實務代表間의 別途接觸 을 통해 協議・解決함.</p> <p>儀典問題는 별도로 實務代表를 정해서 이 代表들간에 協議를 통해서 決定한다는 것 임.</p> <p>(1 - 基調 - 33 ~ 34)</p>	
<p>《其他 問題》</p> <p>其他 會議記錄・往來節次・身邊安全・便 宜提供 등 會談運營節次 問題는 과거 南 北對話의 先例를 準用함.</p> <p>(1 - 基調 - 34)</p> <p>第 1 次 豫備會談에서의 雙方 提案을 고 려할 때 本會談 運營節次 問題에 속하는 事項으로는 (1) 會談形式 (2) 合意書 採擇</p>	<p>《其他 問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書 採擇 <p>合意事項은 雙方이 서명한 合意書로 確認하되 合意書를 採擇할 때에는 각기 두 통씩 作成하여 總理가 署名한 다음 한부씩 交換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記錄 <p>會談記錄은 速記, 錄音, 錄畫 등 각기 편 리한대로 함.</p>

우 리 측	北 측
<p>(3) 會談記錄 (4) 會談報道 (5) 會談場標識 (6) 身邊安全保障 (7) 板門店 通過節次 (8) 滯留日程 (9) 便宜保障 (10) 直通電話 (11) 儀典 등의 問題를 들 수 있음.</p> <p>이 問題들은 雙方間에 별로 큰 意見差異 가 없고 또 과거 南北對話의 先例를 準用 하면 곧 解決될 수 있는 問題들이라고 생 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談報道 會談報道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共同 報道를 할 수 있음. ○ 會談場 標識 會談卓이나 會談場에는 어떤 標識도 하 지 않음. ○ 身邊安全 擔保 雙方은 會談을 위하여 相對側을 來往하 는 人員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하는 總理名 義로 된 身邊安全保障 覺書를 交換함. 相對側 地域을 來往하는 人員들은 自己 側 總理가 발급한 身分證明書를 지참함. ○ 板門店 通過秩序 代表團成員들의 板門店 通過節次는 北 南對話의 前例에 準함. ○ 便宜保障 자기側 地域을 來往하는 相對側 人員들에 대한 便宜保障은 招請側이 責任지고 保障 하며 초청받은 側은 招請側의 案內에 따름. ○ 直通電話 會談事業을 保障하기 위하여 이미 가설 한 平壤과 서울사이의 直通電話線을 이용함.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17~18)</p>

8. 「팀스피리트」訓練問題

우 리 側	北 側
	<p data-bbox="702 339 1238 691">「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軍事訓練이 아니라 共和國北半部를 攻擊하기 위한 豫備戰爭임. 다시 말하여 이것은 우리의 對話結果를 하루 아침에 霧散시켜 버릴 수 있는 극히 불안한 要素임.</p> <p data-bbox="702 723 1238 1139">美軍兵力을 包含하여 무려 20餘萬의 陸海空軍兵力이 投入되고 있는「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은 구라파에서 15개 나라가 參加하여 進行하는 「나토」合同軍事演習에도 兵力이 高작해서 10萬을 넘지 않는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 얼마나 큰 規模의 戰爭演習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p> <p data-bbox="1016 1170 1226 1202">(1 - 基調 - 19)</p> <p data-bbox="702 1298 1238 1713">軍事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雙方의 방대한 武力이 尖銳하게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朝鮮半島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全面戰爭이 터질 수 있는 危險한 情勢가 造成되고 있음.</p> <p data-bbox="1012 1745 1226 1777">(1 - 基調 - 20)</p>

우 리 側	北 側
	<p>언제 불이 달릴지 모를 戰爭危險을 눈 앞에 두고 擔保가 不確實한 對話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고 우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한갓 自己欺瞞으로 밖에는 달리 볼 수 없을 것임.</p> <p>(1 - 基調 - 21)</p> <p>지금 北과 南사이에는 北南國會合同會議가 열리게 되어있고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과 學生會談, 體育會談 등 여러 會談들이 일정에 올라 全般情勢가 緩和와 對話의 方向으로 좋게 흐르고 있는 이러한 때에 貴側이 美國과 함께 우리를 攻擊하기 위한 「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해 나선 것은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는 北南對話에 대한 逆流가 아닐 수 없음.</p> <p>하늘과 땅, 바다로부터 우리를 攻擊하기 위하여 방대한 武力이 밀려들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주앉아 信賴있는 對話를 할 수 있겠는가?</p> <p>(1 - 基調 - 21)</p>

우 리 측	北 측
	<p>貴側이 朝鮮半島의 緊張緩和와 對話, 統一에 조금이라도 關心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거듭되는 要求에 呼應하여 對話에 障礙가 되는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그만두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을 것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우리의 진지한 緊張緩和努力과는 달리 美國과 함께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강행하는 것은 貴側이 同族과 진행하는 平和協商보다도 外勢와 함께 진행하는 戰爭演習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和解와 平和와 統一이 아니라 의연히 「힘」의 對決에 關心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임.</p> <p>「팀 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을 종전과 같이 계속 강행한다는 것은 北과 南사이의 和解와 信賴, 對話와 平和를 위하여 진지하게 努力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冒瀆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p>해마다 벌리는 「팀 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나라의 平和와 統一을 바라는 우</p>

우 리 側	北 側
<p>팀 스피리트 訓練이라는 것은 사실상 貴</p>	<p>리 民族의 念願에 전적으로 背馳되며 緩和와 協力을 指向하는 世界的 趨勢에도 完全히 逆行하는 것임.</p> <p>貴側은 우리의 인내성있는 平和努力과 大勢의 흐름에 맞게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당장 中止함으로써 자기의 政策轉換을 行動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임.</p> <p>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이 會談에서 조선반도의 情勢를 極도로 緊張시키고 北과 南사이의 誤解와 不信, 對決을 激化시키며 平和統一의 길을 가로막는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무조건 中止할 것을 貴側에 正式 要求함.</p> <p>(1 - 基調 -24)</p> <p>「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對話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한 최소한의 措置로 되며 對決과 緊張의 逆流를 和解와 緩和에로 돌려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될 것임.</p> <p>(1 - 基調 -26)</p> <p>우리가 오늘 이 豫備會談에서 豫備會談</p>

우 리 측	北 측
<p>側에서도 알다시피 內容이나 性格自體가 防禦的임. 有事時에 對備하여 우리 大韓民國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防禦訓練이기 때문에 그러한 訓練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南北關係가 改善이 되고, 信賴가 造成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이 成事되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合意事項이 創出이 되고 그리고 緊張이 緩和되고 그러면 自動적으로 그것은 解決되는 것임. 우리 盧泰愚 大統領이 작년 UN總會에 가서 演說하면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北側에 대해서 먼저 武力을 使用하는 일은 없을 것임.</p> <p>(1 - 討議 - 27)</p> <p>UN總會 演說에서 『大韓民國은 南北間에 不可侵宣言이 있기 전에라도 北에 대해 먼저 武力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宣言을 했음. 北側에 대해서 武力을 먼저 使用하는 일은 絕對 없을 것임. 그와 같은 宣言은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지리라라고 確信함.</p> <p>그러니까 그런 問題에 대해 너무 念慮말고</p>	<p>이 좋은 결실을 맺고 빨리 本會談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ทัพ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할데 대한 이런 問題를 먼저 協議・解決하자 그런 것임.</p> <p>(1 - 討議 - 35)</p> <p>속에 칼을 품고 對話를 해서는 결코 成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원래 ทัพ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오늘처럼 北南對話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함.</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방대한 美軍을 끌어들이어서 同族을 반대하는 戰爭演習騷動을 벌이게 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임.</p> <p>우리 民族史에 기록될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嚴重한 障礙로 되고 있는 ทัพ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부터 당장 中止하는 것이 重要함.</p> <p>(1 - 討議 - 40 ~ 41)</p> <p>ทัพ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우리한테 핵 참화를 들뜨우려는 그런 핵 試驗戰爭 이고</p>

우 리 측	北 측
<p>進行하는 것이 좋겠음.</p> <p>(1 - 討議 - 27 ~ 28)</p> <p>豫備會談 外的인 問題를 가지고 계속 論爭을 벌인다거나 貴重한 시간만 허비한다면 그야말로 겨레에게 希望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對話가 과연 이룩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데 하여간 팀스피리트訓練하고 南北對話하고는 관련이 없음.</p> <p>과거에 팀스피리트를 하는 期間중에도 여러차례 南北對話를 한 바 있음.</p> <p>(1 - 討議-42)</p> <p>貴側에서 자꾸만 팀스피리트 때문에 南北對話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팀스피리트 끝나면 남북대화를 해야함. 왜 팀스피리트를 理由로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그 訓練이 끝난 후에는 대화재개에 응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팀스피리트 등 우리 豫備會談代表들에게 부여된 맡겨진 任務 以外の 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1 - 討議 - 43)</p>	<p>豫備戰爭임.</p> <p>戰爭이 터져서 온 촌토가 다 날아가고 民族이 다 없어진 다음에 대화가 무슨 必要 있겠으며 대화라는 말조차도 必要없음.</p> <p>(1 - 討議-47)</p> <p>貴側의 野黨總裁들도 며칠전에 記者들 앞에서 이 팀스피리트訓練이 南北對話에 影響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南北對話를 위해서 이 팀스피리트訓練을 中止하거나 또 縮小할 수도 있고 名稱을 바꾸는 問題를 檢討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p> <p>貴側의 野黨總裁들까지도 이 팀스피리트訓練이 北南關係에서 影響이 가고 특히 對話에 危險을 준다고 이를 中止하는 問題를 舉論하고 있는데 어떻게 貴側 當局에서 이 問題를 繼續 이렇게 强行할 決心을 가지고 있는지 난 그 底意가 理解되지 않음.</p> <p>(1 - 討議-53)</p> <p>우리는 팀스피리트演習이 徹底히 對話의 雰圍氣에 危險을 주는 戰爭演習이라고 評價하고 있는데 그 根據는 다음과 같음.</p>

우 리 側	北 側
<p>東西古今을 막론하고 會談하는데 있어서 相對方과 같이 戰爭을 하지 말자, 혹은 兵力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과거 歷史的으로 볼 때도 많이 있었지만 相對方에게 軍隊가 있는 한 訓練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전례가 한번도 없다고 봄.</p>	<p>첫째, 이 演習이 지금 尖銳한 狀態에 있는 이 北南의 팽팽한 軍事的 緊張度를 더욱 더 極度로 이르게 하고 이 演習自體가 戰爭의 導火線에다가 불을 달 수 있는 매우 危險한 軍事的 行動이기 때문임.</p>
<p>그리고 攻擊的이라는 問題는 우리가 팀 스피리트 訓練할때마다 貴側에게 通報하고 초청한대로 한번 參觀해 보면 貴側에서 여태까지 念慮했던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음. 이게 바로 信賴를 回復해가는 契機이 아닌가 생각됨.</p>	<p>둘째, 合同演習體系內에서 核打擊을 先制로 한 地上攻擊 作戰訓練이고, 또 相對側 海岸을 假想해서 하는 上陸作戰 訓練이며, 相對側 縱深에다 特攻隊를 投入해서 襲擊·派遣하는 特攻隊 作戰訓練이라는 점을 들어 이 모든 訓練이 攻擊的인 性格의 訓練이라고 생각함.</p>
<p>(1 - 討議 - 49)</p>	<p>(1 - 討議 - 57 ~ 58)</p>
<p>軍事演習은 部隊訓練이 大規模냐 小規模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秘密裡에 하느냐 公開裡에 하느냐 이것이 더욱 問題가 된다고 봄.</p>	<p>貴側에서 軍事訓練 굳이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음. 一貫해서 보면 貴側이 『우리는 對話를 貴重히 여긴다, 우리가 하는 訓練은 防禦訓練이다, 防禦的인 性格을 띠는 것이다, 軍隊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軍事訓練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貴側에서 軍事訓練을 하되 貴側軍隊만 가지고 外國軍隊의 參加없이 하고, 規模도 줄이고, 그리고 軍事訓練의 名稱도 고치기</p>
<p>貴側에서도 蘇聯軍과 東海에서 北·蘇 聯合 合同訓練을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부 다 알고 있음.</p>	
<p>그러나 우리가 貴側에서 얘기한대로 좋</p>	

우 리 側	北 側
<p>은 霧圍氣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것임.</p> <p>(1 - 討議-50)</p> <p>하루빨리 高位級當局者會談을 成事시켜 가지고 이러한 問題도, 軍事的 信賴構築問題도 論議하고 餘他 多角的인 交流 協力問題도 論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음. 그러면 應當 會談의 節次·議題·名稱 이런 것들을 論議하는 것이 順理인데, 팀스피리트問題만을 가지고 1時間 40分동안 마치 一方的條件인양 繼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치의 進展도 없이 停滯되고 있음.</p> <p>(1 - 討議-54)</p> <p>솔직히 말해서 팀스피리트訓練을 왜 始作했겠는가?</p> <p>75年4月 北京에서의 發言이 相當히 심각한 影響을 미친 것임. 어디까지나 이 팀스피리트訓練은 여기에서 發端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 8.18事件이 發生하였던 관계로 해서 相對方에 대해 어떤 威脅을 느꼈기 때문에 防禦的이고 公開的으로 이訓</p>	<p>바람. 이것을 우리는 主張함.</p> <p>(1 - 討議 -65,71)</p>

우 리 측	北 측
<p>練을 實施하는 것임.</p> <p>貴側에서 이것을 戰爭을 위한 演習이다, 核戰爭 豫備陰謀라고 聲討를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威脅을 느낀다면 對話를 통해서 풀든가 아니면 우리가 參觀招請을 했 으니만큼 直接 와서 이것이 攻擊的인가 防禦 的인가 하는 것을 確認하면 됨.</p> <p>南北間에 여러 갈래의 對話도 進陟될려는 이때에 어떻게 過去의 惰性에서 한치도 進 展을 못하고 이 重且大한 高位當局者會談 問題를 論議하는데 있어서 팀스피리트 訓練 을 먼저 論議를 해야 된다고 하는 條件을 提示하는 것은 올바른 處事가 아님.</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55)</p> <p>이 貴重한 時間을 팀스피리트問題만을 가 지고 虛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함.</p> <p>貴側이 진정으로 팀스피리트 訓練을 中止 하고 싶으면 貴側이 우리側에 대한 攻擊準 備態勢를 바꿔야 됨.</p> <p>南北對話에 그야말로 성실히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는 南北間에 信賴를 造成하고 關</p>	

우 리 측	北 측
<p>係를 改善하는 이런데다가 모든 것을, 우리의 力量을 集中해서 和解를 하고 關係改善을 하여야 함.</p> <p>相互間에 尖銳한 對立關係에 놓여 있는 그런 狀況에서 貴側이 방대한 무기와 裝備를 가지고 10萬이 넘는 특수부대를 保有하고 있고 대부분의 軍隊를 前方으로 集中配置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攻擊態勢를 準備하고 있는 狀況속에서 팀스피리트訓練은 불가피함.</p> <p>貴側이 팀스피리트訓練을 中止시키고 싶으면 貴側의 準備態勢부터 바꾸어야 함. 이것은 相互的인 것임.</p> <p>(1 - 討議 - 68 ~ 69)</p>	<p>「 팀 스피리트 」 合同軍事演習의 中止는 北南對決을 끝장내기 위한 肯定的인 첫걸음으로 評價될 것이지만 그것을 강행하는것은 구태의연한 對決의 立場으로밖에 달리 는 볼 수 없을 것임.</p> <p>(2 - 基調 - 20)</p> <p>우리는 戰爭危險을 增大시킬 것이 아니</p>

우 리 側	北 側
	<p>라 어떻게 해서라도 戰爭危險을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당면하여 朝鮮半島에서 全面 戰爭의 導火線으로 될 수 있는 「팀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을 中止해야 함.</p> <p>이것이야말로 朝鮮半島에서 平和의 立場과 戰爭의 立場을 가르는 試金石으로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1)</p> <p>이 合同軍事演習은 결코 남조선을 「保護」 하자는 것도 아님.</p> <p>자신의 民族的 尊嚴과 利益을 저버리고 나라를 核戰爭의 마당으로 만드는 것도 불사하면서 外勢의 戰爭戰略에 가담하여 나선다는 것, 나라의 절반땅을 지킨다는 名目 밑에 外國軍隊와 함께 다른 절반땅의 同族을 반대하는 戰爭演習을 벌인다는 것, 이것은 아무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民族主體性의 喪失이고 民族의 羞恥임.</p> <p>이것은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생각하는 사람의 立場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2)</p>

우 리 側	北 側
	<p>이러한 견지에서 貴側이 자신의 立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豫備會談의 성과적 進展을 위해서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緊急措置를 취할 것을 제의함.</p> <p>첫째로, 對話否定的인 「팀 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을 당장 中止하여야 함.</p> <p>이와 관련하여 「팀 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을 中止시킬데 대한 立場을 公式發表하여야 함.</p> <p>둘째로, 「팀 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에 동원된 모든 戰鬥兵力과 武裝裝備등을 즉시 復歸시켜야 함.</p> <p>이와 관련하여</p> <p>①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을 위하여 海外로부터 남조선에 投入된 戰鬥兵力과 武裝裝備들을 지체없이 조선반도 境外로 내보내야 함.</p> <p>②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을 目的으로 海外에서 機動 중에 있거나 出發態勢에 있는 美陸海空軍部隊들과 武裝裝備들이 남조선 境內으로 搬入되는 것을 즉시 停止시켜야 함.</p>

우 리 측	北 측
<p> 貴側이 진정으로 對話를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고 民族의 和解와 團合을 도모하고 平和統一을 앞당기려고 한다면 이런 會談外的인 팀 스피리트訓練 中止 같은 主張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基本任務인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가서 하루속히 우리 總理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함. </p> <p> 그런 意味에서 나는 貴側의 對話姿勢가 보다 진지하고 또 肯定的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促求하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基本的인 任務 즉,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28)</p>	<p> ③ 남조선안에서 이미 動員되었거나 動員態勢를 갖추고 있는 戰鬪兵力과 武裝裝備들을 「팀 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 이 전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함. </p> <p> 세째로, 軍事訓練을 하려면 外國軍隊의 參加없이 南朝鮮 軍隊들만 가지고 하며 規模도 줄이고 軍事演習의 名稱도 고쳐야 함. </p> <p style="text-align: right;">(2 - 基調 - 23 ~ 24)</p> <p> 우리가 오늘 또다시 온 겨레의 念願과 世界輿論의 요구도 담아서 어떻게 하나 豫備會談을 빨리 결속짓고 本會談을 誕生시키려는 그런 一念으로부터, 진지한 立場으로부터 팀 스피리트 89 合同軍事演習 中止와 有關한 緊急對策을 담은 새로운 提案을 提示한 것 만큼 오늘 이 會談에서는 우선 그 問題에 대한 合意를 보고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넘어갈 것을 希望함. </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28)</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은 자꾸만 팀 스피리트訓練 問題를 舉論하는데 우리가 왜 팀스피리트訓練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은 貴側이 지난 40 餘年間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해 敵對 政策을 취하고 있고 또 貴側이 취하고 있는 軍事路線 때문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2)</p> <p>貴側은 지금 軍事訓練을 실시하면서 비밀리에 하고 있음. 公開的으로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같이 事前에 발표한다거나 參觀人 招請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고 있음.</p> <p>또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 조차도 事實로 認定하려고도 하지 않음.</p> <p>그리고 重武裝部隊를 전방지역에다가 비무장지대에 集中配置하고 있고 또 이런 狀況속에서 우리를 威脅하고 있는 이와 같은 敵對的인 政策을 持續하고 있음.</p> <p>그리고 南北關係는 制度的으로 하나도 改善되지 않고 있음.</p> <p>이런 狀況속에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狀況을, 불행한 事態를 豫防하고 또 우리의 生存을 위</p>	<p>지금 宋先生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뭐 前力에 軍隊를 前進配置하고 또 軍事訓練도 비밀리에 하고, 우리가 貴側에 무슨 威脅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게 없으면 된다고 하고, 또 貴側이 지금 자꾸 우리 보고 南侵을 하려고 한다.</p> <p>그리고 우리가 武力을 增強하고 貴側을 지금 攻擊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선 論理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3 ~ 34)</p>

우 리 側	北 側
<p>해서 가령 防禦的인 目的의 軍事訓練 같은 自衛的인 態勢를 우리가 講究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도 나무랄 수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2 ~ 33)</p> <p>貴側이 진정으로 이런 大規模 軍事訓練의 中止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訓練을 불가피하게 만든 根本原因과 연관된 問題를 解消하는 努力부터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함.</p> <p>그리고 우리 對話앞에 不必要한 이와 같은 障礙를 자꾸만 造成하는 것을 되풀이 하지 말고 그야말로 民族의 和合과 信賴를 도모하는 일들에 힘써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함.</p> <p>그리고 南北間에 信賴가 조성이 되고 또 南北間에 이렇게 大規模訓練이 불필요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關係改善이 되고 또 平和定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p> <p>그때가 되면 軍事訓練도 자동적으로 解決되는 問題임.</p> <p>그러기 때문에 貴側이 팀스피리트 訓練中</p>	<p>지금 당면한 이 증대한 危險한 戰爭演習을 막는 것부터 먼저 問題解決이 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實務節次 問題를 먼저 討議해야 되겠는가 이진 自明하다고 생각함. 더구나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은 어떤 演習인가? 大國들의 軍事的 對決이 아름다운 삼천리 우리강토를 犧牲物로 만드는 그런 演習임. 지금 美國의 政界와 軍部에서는 내놓고 말들을 하고있음. 朝鮮半島가 大國들의 對決때문에 그 戰略的 價値가 浮上되었음. 이렇게 지난 2月 15日날에 貴側 國防部長官 이상훈氏가 말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8)</p>

우 리 側	北 側
<p>止를 舉論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威脅하는 그와 같은 攻擊的인 態勢라든가 政策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33)</p> <p>팀스피리트訓練이 기본적으로 韓半島情勢를 緊張시키거나 상대방을 威脅하는 攻擊的인 訓練어이다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분명히 立證이 되는 것임.</p> <p>첫째 이 訓練은 1976年부터 年例의으로 進行을 해왔고 그 規模·日時·作戰地域 등을 우리가 모두 공개리에 실시를 하고 있음.</p> <p>두번째, 1982年부터는 貴側에 대해서 이 訓練計劃을 事前에 통보를 하고 참관까지도 招請을 했음.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와서 보시는 것이 더 確實하고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貴側으로 하여금 이 訓練이『有事時에 대비한 防禦的 性格의 訓練이구나』하고 直接 確認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51)</p>	<p>貴側에서는 同族과 함께 벌이는 對話에 대해서, 이 對話의 運命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美國사람들과 손을 잡고 美國 軍隊를 끌어들여서 벌이는 戰爭演習에 대해서는 防禦的이요 어떻소 하고 辯護하는데 이걸 사실상 事大와 外勢의 依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p> <p>이제 김삼훈선생이 實際的으로 우리나라 實體를 잘모르고 參觀招請을 얘기했음.</p> <p>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停戰狀態에 있음.</p> <p>停戰이라는건 作戰과 戰爭의 一時的인 中斷狀態를 말함. 총포소리를 내다가 끊은 狀態임.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한테 招請과 參觀이 무슨 소리인가?</p> <p>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모독이고 우리에게 대한 희롱임.</p>

우 리 側	北 側
<p>貴側에서도 만약에 우리를 招請한다면 얼마든지 가겠음. 와서 보시고 『아, 이거 우리가 誤解했구나, 그것이 공격형 訓練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도 한번만 보시면 즉시 알 수 있음. 왜 쉬운 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느냐 이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64)</p>	<p>우리는 尊嚴을 가진 사람임. 이견에 의도 없고 무분별한 이런 처사임. 招請과 參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이 防禦的이니까 아무런 危險性도 없소 하고 세계에다 내대고 輿論을 펼치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술법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60 ~ 61)</p>
<p>우리側 訓練의 防禦的 性格은 작년 10月 18日 盧大統領께서 유엔總會演說을 통해서 貴側에 대한 武力不使用을 對内外에 천명한 사실에서도 立證이 되고 있음. 또 訓練規模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最近에 와서 오히려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줄어들면 줄어들었고 訓練規模도 일체 증강되거나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52)</p>	<p>貴側에선 軍當局에서도 그렇고 政府當局에서도 팀스피리트 訓練問題가, 問題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縮小한다 規模를 줄인다 하는 問題가 많이 論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p> <p>이건 벌써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이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貴側이 認定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61)</p>
<p>과거의 팀스피리트 訓練期間中에도 여러차례 南北對話를 계속했던 사실이 있고 또 금년의 경우에도 어떤 對話는 팀스피</p>	

우 리 측	北 측
<p>리트 訓練을 얘기하면서 하고 또 어떤 對話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p> <p>과거의 예를 한번 보면 예컨대 팀스피리트 79年 期間中에는 南北調節委 서울側 代表와 貴側의 祖國戰線 代表들간에 판문점 接觸이 세번이 있었으며, 平壤開催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單一팀 구성 출전문제와 관련된 南北卓球會談이 네번 開催된 적이 있음. 또한 팀스피리트 80年 기간중에도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 代表接觸이 3次에서 6次까지 네번이 開催된 적이 있고, 팀스피리트 84年 기간중에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大會에 南北單一팀 構成·出戰問題와 관련해서 體育會談이 4月9日 한번 開催되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52 ~ 53)</p> <p>또 한편으로는 우리側の 일부 제야세력 과의 對話에는, 代表性도 없고 權限도 없는 이러한 側과의 對話에는 積極的인 자세를 보이는 등 우리側으로서 是 貴側이</p>	

우 리 측	北 측
<p>팀스피리트 訓練問題를 이유로 어떤 對話는 하지 말고 또 어떤 對話는 해도 좋다는 一貫性없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期待에 차있던 우리 國民들이 貴側의 底意와 對話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심히 疑心하고 失望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p> <p>(2 - 討議 - 53)</p> <p>相互間의 內部問題는 內部問題로서 尊重을 하고 南北間의 問題는 對話로서 풀어나가는 努力이 必要함. 따라서 貴側이 對話의 相對者로서 또한 韓半島問題 解決의 協議對象者로서 우리가 實體로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하여 나갈 때 一方的으로 駐韓美軍·韓美間의 合同軍事訓練, 팀스피리트 訓練 이런 問題는 對話의 전제로서 간섭할 性格의 問題는 아닌 것임.</p> <p>(2 - 討議 - 55)</p> <p>貴側도 中國·蘇聯등 貴側의 同盟國들과 相互 軍事同盟條約도 맺고 그에 따라서 合同軍事訓練도 하고 있지 않은가? 最</p>	<p>아까 무슨 蘇聯海軍副司令官이 뭐 이렇게 말을 했다하고 하는데 우리가 貴側의 소식을 들었음.</p>

우 리 側	北 側
<p>近에 蘇聯의 中將 한분이 이 사실을 發表를 해가지고 세상에 公開가 된적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55)</p> <p>우리를 한번 招請해 보십시오. 가서 보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5)</p>	<p>蘇聯海軍副總司令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海軍과 合同演習을 일주일정도 한다는 이런 報道를 그쪽에서 날린 것을 우리 들었음.</p> <p>宋先生도 그렇고, 金先生한테도 내가 얘기하겠는데 가서 다시 찾아 보기 바람. 거기에는 合同軍事演習이라는게 없음. 전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親善儀式 그저 互相訪問하고 갔다왔다 할때 맞이하고 보내고 할 때 하는 親善儀式이지 合同軍事演習이 아님.</p> <p>또 일주일을 한다고 했는데 一晝夜를 함. 一晝夜라는데 24時間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85)</p>
<p>이러한 팀스피리트 問題와 關聯된 우리의 立場, 冒頭에서 얘기했듯이 國際社會에 實體로서 存在하는 南과 北이 40여년간 쌓인 緊張과 對決상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우리側 軍事訓練, 14년째 連綿적으로 해오고 있는 公開的 性格의 軍事訓練에 그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40여년간에 누적된 南北分斷과 軍事的 對決, 敵對關係, 相互不</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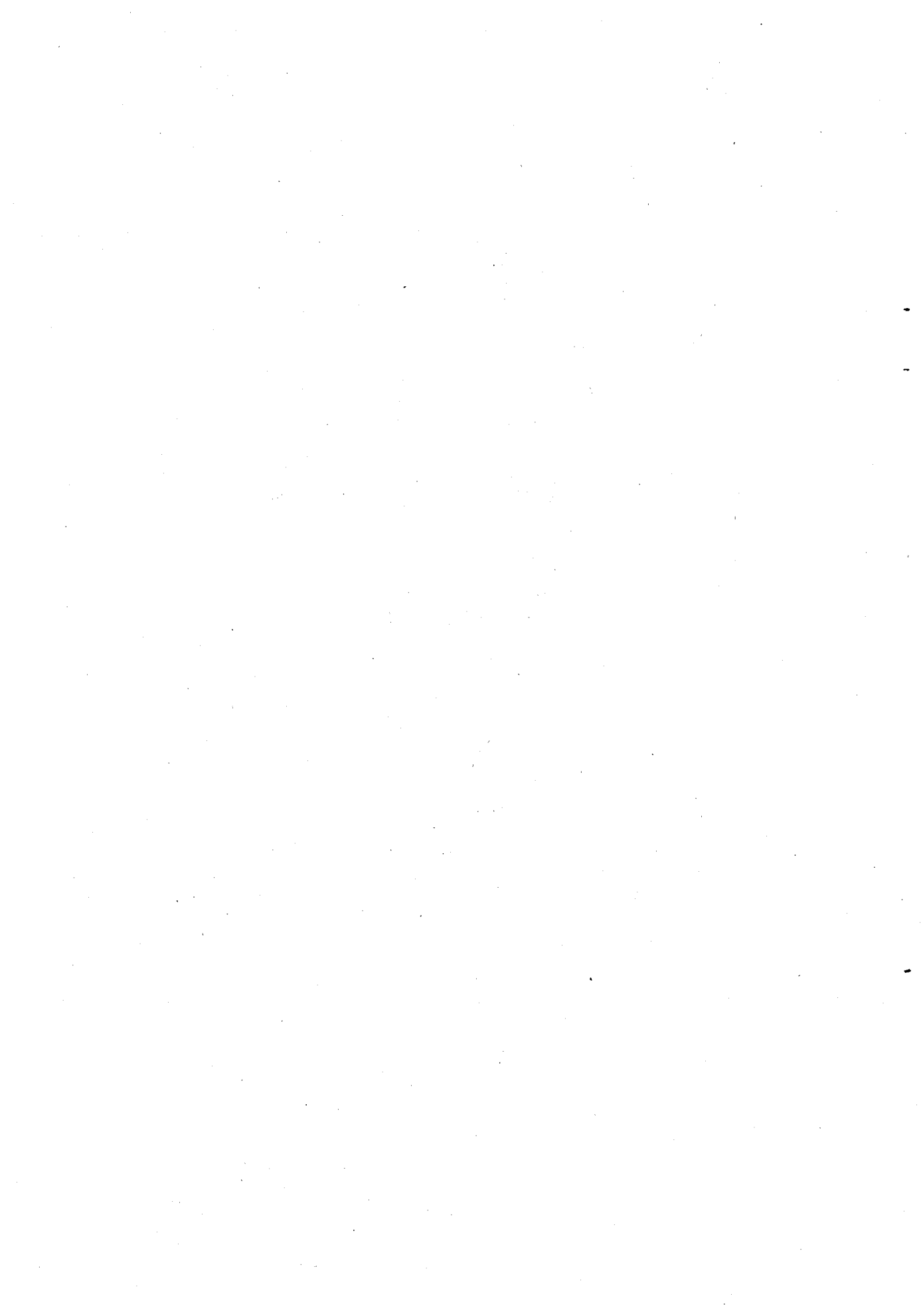
우 리 側	北 側
<p>信 이런데에서 기인하는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한 南北總理間의 會談을 빨리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서 南北韓間의 僑賴를 回復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임. 이 점을 다시 한번 強調함.</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5)</p>	

9. 豫備會談 公開問題

우 리 측	北 측
<p>會談을 시작하는데 公開的으로 하는 方法도 있고 非公開的인 方法도 있고하는데 차분하게 과거의 對話와는 다르게 하자는 것임.</p> <p>또 效果的이고 實質的인 對話를 하도록 할려면 公開的으로 하는 것 보다는 非公開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임.</p> <p>(1 - 討議 - 12)</p> <p>이런 方法도 생각할 수 있음. 첫發言文은 公開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의 討議나 協議는 非公開的으로 하는 方法도 있음.</p> <p>오늘 會談을 公開로 하는 것은 좋음.</p> <p>(1 - 討議 - 13)</p>	<p>民族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非公開的으로 할 것없이 豫備接觸을 公開로 하고 필요하면 雙方이 討論해서 非公開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p> <p>(1 - 討議 - 12)</p> <p>民族이 念願하고 民族에게 우리가 대담을 취야하는 會談인데 公開的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會談을 하면서 非公開的으로 할 必要가 있다 하면 宋先生하고 나하고 討論을 해서 非公開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음. 오늘 1次會談은 公開的으로 하도록 함.</p> <p>(1 - 討議 - 13)</p>
<p>지난번 會談에서도 貴側은 公開的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非公開로 해서 정말 南과 北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여러가지 問題들을 虛心坦懷하게 얘기해서 처리해 나가자 했는데, 貴側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公開로 할 것을 主張해서 이 會談이 公開가 되었음. 그러</p>	

우 리 側	北 側
<p>나 잘 아시다시피 어느 會談이나 公開發 으로 할 때에는 意識해야 되는데가 많음. 또 宣傳場化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 리는 非公開로 해서 相對方의 立場을 성의 있게 協議해 나가자 했지만 貴側은 또다 시 오늘 公開發로 主張을 하면서 팀스피리 트 訓練에 관한 問題만을 會談의 前提條件 化해서 내놓았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56)</p>	

II.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南北體育會談
(第1次~第2次)



1. 會談意義・姿勢 및 原則問題

우 리 측	北 측
<p>오늘 南北의 體育인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p> <p>돌이켜 보면 5年前 바로 이 板門店에서 南北體育會談이 일시 進行된 이후 體育分野에서는 對內外的으로 여러가지 큰 規模의 國際的 行事들이 치러졌음.</p> <p>그동안 南北의 體育인들이 서로 協力하고 團合된 모습을 우리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주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1 - 基調 - 24)</p>	<p>北과 南의 體育代表들이 唯一팀으로 國際競技에 出戰할 것을 갈망하는 體育인들과 人民들의 念願을 안고 이렇게 마주앉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p> <p>唯一팀을 구성하기 위한 北南體育會談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體育인들은 雙手를 들어 열렬히 환영하면서 北南代表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첫 唯一팀을 세상에 내놓을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음. (1 - 基調 - 15)</p>
<p>오늘날 世界의 모든 나라들은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和解와 協力, 開放과 共存의 길을 追求하고 있음.</p> <p>南北의 온 겨레 또한 오랜 反目과 對決構造를 과감히 清算하고 和解와 團合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바라고 있음.</p> <p>우리 體育인들은 이같은 內外情勢의 趨勢와 民族的 輿望에 副應하기 위하여 마땅히 體育分野에서의 相互 交流와 協力の 實現을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임. (1 - 基調 - 25)</p>	<p>北과 南의 體育인들이 지금처럼 別個의 팀으로 國際競技에 나가 서로 優劣과 勝敗를 겨루며 對決하는 가슴아픈 悲劇은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함.</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重要한 國際競技大會가 있을 때마다 北과 南이 唯一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기 위한 體育會談을 가질 것을 發起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誠意와 努力을 다하여 왔음.</p> <p>北南唯一팀을 구성하기 위한 우리側の 努力이 應當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않음. (1 - 基調 - 16)</p>

우 리 側	北 側
<p>그동안 南北間에는 國際競技에 出戰할 單一팀 構成問題를 여러 차례에 걸쳐 論議한 經驗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進展이 있기도 했음.</p> <p>우리 民族이 한결같이 統一을 渴望하는 것처럼 南北의 體育人들은 各種 國際體育 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할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해왔음.</p>	<p>지금 北과 南, 海外의 各界各層 人民들 속에서는 北南사이의 反目과 對決을 解消하고 民族的 團合과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는 潮流로 되고 있음.</p> <p>지금이야말로 우리 體育人들이 民族自主 精神과 救國統一의 意志를 가다듬고 北南唯一팀을 構成함으로써 民族의 和解와 團合, 나라의 平和統一에 기여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해야 할 때라고 생각함.</p>
<p>(1 - 基調 - 25)</p>	<p>(1 - 基調 - 16)</p>
<p>南北間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努力이 窮極的으로는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것임을 想起할 때 南北 單一팀 構成은 이러한 目標과 理想을 體育分野에서 實現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음.</p>	<p>우리가 體育會談을 成功시켜 唯一팀을 구성하고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共同으로 출전하면 民族의 團合된 偉力과 슬기를 세계 만방에 誇示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그렇게 되면 北南사이에 수십년 세월 굳게 일어불었던 隔閉狀態는 봄날의 눈송이처럼 녹고 民族의 최대 숙원인 祖國統一은 앞당겨지게 될 것임. 그런만큼 우리 雙方 대표들의 使命과 任務는 실로 막중한 것임.</p>
<p>그러나 理想과 目標은 단순한 希望이나 主張만으로 成就되는 것은 결코 아님. 그것을 成就하고자 하는 實踐意志를 바탕으로 相互尊重과 讓步의 精神이 앞서야 할 것임.</p>	
<p>이와 함께 體育分野에서의 接觸과 交流의 經驗을 착실히 蓄積시키고 이를 통해 相互信賴를 두터이 해나가야 할 것임.</p>	<p>(1 - 基調 - 17)</p>
<p>(1 - 基調 - 25~26)</p>	

우 리 側	北 側
<p>우리는 지난날의 여러차례에 걸친 單-팀 構成協議의 經驗을 거울삼아 이번 會談에서 좋은 結實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努力해야 할 것임.</p> <p>우리 代表團은 이번에는야말로 南北 單-팀 構成・參加를 기필코 成事시켜야겠다는 確固한 決意를 다지고 이 자리에 나왔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6)</p> <p>지금 會談에 대해서 平素 接觸을 많이 하고 있는 學生들과 教授들은 이번 機會에 어떻게 「南北單-팀」이 確定되어서 明年에는 한팀이 되어서 北京大會에 나가기를</p>	<p>모처럼 마련된 體育會談을 반드시 成功에로 이끌어 나가자면 雙方이 다음과 같은 올바른 會談姿勢와 原則에 서서 問題討議에 성실히 참가해야함.</p> <p>첫째로, 雙方은 祖國統一 3大原則에 따라 民族的 和解와 團合, 統一에 寄與하려는 姿勢와 原則을 堅持하여야 함.</p> <p>둘째로, 雙方은 民族的 利益을 最優先 順位에 놓고 民族的 利益에 부합되는 唯一팀을 구성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야 함.</p> <p>셋째로, 雙方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지혜를 최상의 水準에서 宣揚하고 發揮할 수 있도록 唯一팀을 構成하여야 함.</p> <p>넷째로, 雙方은 北南唯一팀 構成問題를 解決하는데서 인위적인 난관이나 複雜性을 조성하지 말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18~ 19)</p> <p>會談에 대한 反應이 아주 相當히 좋은 것 같음. 體育人들 뿐만아니라 男女老少할것 없이 이 會談에 대해서 相當히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p>

우 리 側	北 側
<p>모두 간절히 希望하고 있음.</p> <p>(2 - 歡談 - 7)</p> <p>會談이 잘 풀려가게 되면 다른 일들도 잘 進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期待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 體育人들간에 和解의 꽃을 피우고 해서 南北間의 한 겨레가 서로 統一을 向해서 前進을 할 수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p>	<p>특히는 從前의 우리 지난 時期 다른 會談보다도 1次會談에서 一定한 合意點을 본 것을 놓고봐서 이번 會談에서는 體育會談에서는 될 것 같다는 希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p> <p>(2 - 歡談 - 7)</p>
<p>(2 - 歡談 - 8)</p> <p>雙方은 國際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出戰하는 것이야말로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바라는 온 겨레의 輿望에 副應하는 길 이라는데 認識을 같이하면서 各其 提示한 單一팀 構成・參加方案들을 놓고 眞摯한 協議를 이미 始作했음.</p> <p>始作이 半이라는 말이 있듯이 南北單一팀 構成・參加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이 이와같이 順調로운 出發을 보이고 具體的 方案에 대한 論議가 眞摯하게 進行된다는 것은 南北體育會談의 前途를 밝게 해 줄뿐만 아니라 南北關係 改善에도 좋은 影響을 주</p>	<p>近 30年동안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은 여러차례 했어도 成功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더우기는 5年前에 體育會談을 열었고 도 不必要한 論爭으로 時間을 보내다가 唯一팀을 誕生시키지 못했던 不美스러운 過去를 생생하게 記憶하고 있는 體育人들과 온 겨레는 이번 會談을 熱烈히 歡迎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前途에 대하여 憂慮하는 面이 없지 않아 보임.</p> <p>(2 - 基調 - 18)</p> <p>지금 內外人民들과 世界輿論은 唯一팀 構成을 위한 北南體育會談이 成功하여 나라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對決과 不信의 障壁을 무너뜨리며 民族團合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는데 크게 寄與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음.</p>

우 리 側	北 側
<p>리라고 생각함.</p> <p>(2 - 基調-13)</p>	<p>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民族앞에 지니고 있는 責任의 막중함을 자각하게 하며 會談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使命感을 북돋아주고 있음.</p> <p>(2 - 基調-20)</p>

2. 會談議題問題

우 리 側	北 側
<p>「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問題」로 議題를 정했으면 좋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歡談 - 15)</p> <p>會談의 議題를 「第11回 北京아시아 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問題」로 할 것을 提議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6)</p>	<p>議程은 貴側의 信任狀에서도 表示된 바와 같이 「第11次 아시아 競技大會에 北南唯一팀을 構成해서 出戰할데 대하여」 이 議程을 그냥 討論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歡談 - 14)</p> <p>表現에서는 각기 便利한대로 부르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歡談 - 15)</p>

3. 南北單一팀 構成方案

가. 選手團 呼稱

우 리 側	北 側
<p>選手團의 呼稱은 國際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로마字 「KOREA」로 表記하고 우리말로는 「南北單一팀」으로 表記함.</p>	<p>唯一팀名稱은 우리 말로 <고려선수단> 이라고 하며 英文字로 <KORYO>로 쓰고 略字로는 <KRY>를 사용함.</p>
<p>(1 - 基調 - 26 , 2 - 基調 - 14)</p>	<p>(1 - 基調 - 19)</p>
<p>지금 對內外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것은 「KOREA」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側이나 貴側이나 다 「KOREA」로 쓰고 있음. 다만 이것을 우리말로 表記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여러번 意見이 갈라져 가지고서 合意를 못본 路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北京에 가면 外國말을 쓸 것이고 또 아시아의 對外共用語는 英語가 되니까 서로의 우리말 表現에 毗차간 讓步할 수 없는 이러한 名稱을 固執하다 보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짐. (1 - 討議 - 31)</p>	<p>名稱問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함. 이 名稱이 北南 唯一팀을 象徵하는 選手團의 名稱인 것만큼 누구나 봐도 北南唯一팀이라는 것을 인차 가져볼 수 있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重要的 것은 우리 民族의 特性이나 民族의 志向같은 것 또 民族의 傳統같은 것이 反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唯一팀 名稱을 命名하는데서는 어느 一方의 要求를 相對方에 强요해서도 안 됨. (1 - 討議 - 31)</p>
<p>우리가 單一팀이 돼서 나갈 경우에 外國사람들이 우리 單一팀을 「KOREA」라고 부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임. 단지 이제 地域的인 면에 있어서 우리</p>	<p>貴側에서 英語로 「KOREA」라고 方案을 提起했는데 이 「KOREA」라는 名稱은 貴側에서 지난 時期 별개의 팀으로 달고 나가던 이름이고, 우리는 競技大會에 나갈 때 우리 名稱을 「DPR KOREA」라고 달았음.</p>

우 리 측	北 측
<p>가 어떠한 集團性을 말하지 않고 地域的인 面에 있어서 「South Korea」다 「North Korea」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임.</p> <p>(1 - 討議 - 33)</p>	<p>반대로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하자는 會談에서 貴側의 立場을 無視하고 『우리 DPR KOREA 로 합시다』이렇게 提起하면 아마 貴側에서도 『아, 그거야 相對方의 尊嚴을 毀損시키는데 어떻게 接受하겠는가?』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함.</p> <p>(1 - 討議 - 31~32)</p>
<p>우리가 外國에 나가서 「고려」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 「고려」가 뭔가하고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상당히 懷疑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側에서 우리말로 내놓지 않은 理由는 이 名稱 때문에 體育會談의 本質적인 이러한 面이 毀損돼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임.</p> <p>(1 - 討議 - 33)</p>	<p>「고려」그대로 表記하는데는 많은 것을 생각했음.</p> <p>이것은 雙方이 어느 별개팀 이름으로 나왔거나 尊嚴을 毀損시키면서까지 우리가 強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려」를 擇한 것임.</p>
<p>물론 우리가 「大韓」이라고 내세울 수도 있는데 「大韓」이라고 하는 것은 1897年 우리가 엄연히 世界에 獨立國이라는 것을 宣言을 했고 또 우리가 1919年 3月 1日 全國에서 만세운동, 獨立運動의 이러한 열기가 있는 이후에 4월에 樹立된 우리나라의 臨時政府도 上海에서 「大韓」이라는 말을 썼었음.</p>	<p>「고려」로 말하면 우리 「KOREA」의 語源도 「고려」國家로부터 나온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統一國家로서 近 500年 동안 存在해 있었고 또 그 이름이 世界에 널리 알려져 있음.</p> <p>그러니까 이제는 國際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또 「KOREA」의 語源을 두고 있다는 이런 世界的인 見地, 다른 하나는 歷史的인 見地, 民族 傳統的인 見地, 또 하나는</p>

우 리 側	北 側
<p>그런가 하면 지금 「고려」는 統一國家로서의 名稱이라 했는데 그러면 「新羅」라는 것도 三國時代에 高句麗・百濟를 統一을 했었던 統一新羅時代도 있는 것임.</p> <p>(1 - 討議 - 33 ~ 34)</p>	<p>貴側에서도 무엇을 命名할 때 「고려」 이름을 즐겨 쓰고 있는 것만큼 「고려」라는 이름에는 뒤에 숨은 무엇이 있다든가 그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함.</p> <p>(1 - 討議 - 32)</p>
<p>「新羅나 高麗나」 우리가 여기에서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 지난 우리 歷史中的 어떠한 名稱을 가지고 그것을 「고려」다, 또는 「大韓」이다, 「新羅」다 이런 여러가지 말을 내놓는다고 하게 되면 오늘 하루종일 다가도 合意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됨.</p> <p>(1 - 討議 - 34)</p>	<p>歷史의 見地에서 보면 뭐 어느 이름을 단다고 貴側에서 정식으로 提起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 도중에 나온 것인데, 뭐 「고려」를 달자 하니까 「新羅」를 달자 或은 「大韓」을 달 수도 있다는 式으로 하는데, 新羅로 보면 물론 歷史觀들이 다 다릅니다만 笁연한 史實의 見地에서 볼 때 新羅는 사실상 大同江 以南地域만 했고 全土를 統一한 것이 못된 셈임.</p>
<p>「高麗」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韓半島의 地圖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領域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高麗王朝를 세운 王建을 중심한 이러한 그 당시의 支配階級을 본다고 하며는 그것도 歷史的으로 矛盾이 있는 하나의 支配階級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임.</p> <p>(1 - 討議 - 36)</p>	<p>新羅로 말하면 한 민족이 三國으로 分裂이 되어 있을 때 統一한 方法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歷史學者들의 學術討論會는 아니지만, 外勢와 한쪽이 되어서 형제의 나라를 滅한 그런 것임.</p> <p>(1 - 討議 - 36)</p>

우 리 側	北 側
<p>「KOREA」라는 用語를 表記하자고 내놓은 理由에 대해서 貴側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하겠음.</p> <p>사실 「KOREA」라고 하는 것은 貴側도 나라이름을 「KOREA」라는 말을 넣어서 表記하고 있고 말하자면 南과 北이 共通으로 쓰고 있는 國名가운데 共通點을 찾는 그러한 취지임.</p> <p>國際적으로 「KOREA」라고 하면 지금 世界萬邦에서 모르는 곳이 없음.</p> <p>그러나 「KOREA」를 빼놓고 다른 어떠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더라도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어디 新生國인가』 전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國際적인 狀況이고 또 貴側에서도 과거에 會談을 할적에 「KOREA」라는 用語를 쓰자고 提起한 일도 있고 南北間에 사실상 意見이 接近된 적도 있었음. 그래서 「KOREA」라는 말로 合意를 보는데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趣旨에서 우리가 「KOREA」라는 말을 擇한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40 ~ 41)</p>	<p>우리가 지금까지 別個의 팀으로 貴側에서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도 「KOREA」로 됐었고 世界 種目別 選手權大會에 나갈 때도 「KOREA」로 나갔음.</p> <p>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이게 唯一팀이라는 것이 우리 民族史에도 없는 것이고 그토록 갈망하는 것인데, 互相 다 接受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貴側에서 英語로 여태까지 쓰던 「KOREA」를 唯一팀名稱으로 모자를 씌우자, 이렇게 되면 困難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33 ~ 34)</p> <p>이제 그쪽에서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KOREA」는 이제도 얘기되었지만 이것이 남쪽에서 지금까지 나갈 때 그런 名稱으로 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唯一팀 構成한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이는 이제 한쪽에는 좀 接受가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35)</p>

우 리 側	北 側
<p>새로운 統一國家의 國名을 정하기 以前에는 現實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두개의 實體를 서로가 傷하는 方法으로 이름을 정하는 어려움. 그래서 결국은 서로 互讓의 精神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體育人 精神을 가지고서 문제를 合意를 하려면 어느 한쪽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도 이 우리말로 表記라는 것은 國際社會에서 「KOREA」라고 통하면 되는 것임. (1 - 討議 - 41)</p>	<p>「南北」이라는 것이 地域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民族앞에 世界萬邦에 우리 한 民族이 唯一팀을 構成했다는데 「南北」자 이게 어느 쪽의 「南北」인가 이렇게도 생각되어 지니까 우리 民族의 特性을 反映하는 이름을 달아야 함.</p> <p>(1 - 討議 - 36)</p>
<p>물론 單一팀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대한 適合한 名稱을 여기에 우리가 내놓지 않은 것은 서로가 讓步의 精神을 가지고 과거에 누차 名稱問題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말 表記를 피해야 되겠다 해서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假想的으로 「南北單一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呼稱問題 가지고서는 우리가 「고려」다 뭐다 이렇게 긴 時間을 얘기해도 結末짓기 어려우니까 좀 더 이 문제는 雙方이 研究해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됨.</p> <p>(1 - 討議 - 37)</p>	<p>또 본래 貴側에서 提起한대로 「南北唯一팀」을 조선말로 하자면 깃발에도 英語로 「南北唯一팀」이라고 表記를 달아야 하지, 조선말로 다른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쓰는 것은 다른 소리로 하고 그러면야 一致되지 않고 세상사람들한테 오히려 混沌을 주게 됨.</p> <p>(1 - 討議 - 39)</p> <p>「大韓」하고 「고려」하고야 「고려」는 第3의 이름이고 「大韓」이야 貴側이 쓰던 이름인데 「大韓」하고 「고려」를 또 대치시키면 맞지 않음. 더 研究하도록 함.</p> <p>(1 - 討議 - 40)</p>

우 리 측	北 側
<p>반드시 「고려」라고 해서 그것이 民族的인 思考냐, 「大韓」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高麗」라든가 「新羅」 그 다음에 「高句麗」, 이렇게 생각하면 「大韓」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여기서 이 名稱가지고 더 얘기 안하기로 하고 雙方이 더 研究하도록 함. (1 - 討議 - 40)</p> <p>南北韓이 單一팀을 만든다 하는 것은 뭔가 6千萬 우리 겨레의 마음에 合當한 것을 찾아내는데 時間이 걸리더라도 좋은 方案을 생각해서 名稱을 찾아내서 貴側의 마음에 조금도 그늘지지 않게 하고 또 우리들 마음에 그늘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採擇하자는 것임.</p> <p>그래서 나는 時間을 좀 두면서 討議를 해보자는 것임. (2 - 討議 - 46)</p> <p>1次會議때 먼저 雙方이 名稱問題에 대해서 案을 내놓았고, 이와 關聯해서 서로의 意見을 相當히 깊이가 있는 程度로 까지 交換을 했었다고 생각이 됨.</p> <p>그리고 1次會議때 헤어질 무렵에 다음에</p>	<p>名稱問題는 國號나 나라이름도 아닌거고 이번 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나가는 팀의 이름이니까 學術的으로 複雜하게 생각하면 時間을 오래 끌게 되고 唯一팀 構成을 위한 準備事業에 支障이 있게 됨.</p> <p>(2 - 討議 - 47)</p> <p>名稱問題는 우리 1次會議때 公明正大하게 우리가 쓰는 이름도 아니고 貴側이 쓰는 이름도 아닌 「고려」를 提起했고 貴側에서는 「KOREA」와 「南北單一팀」을 제기했음.</p> <p>그러면 1次會談으로 돌아가서 이 問題를 뒤로 미루어서 잘 研究하고 나오자 했으면 미리 가서 研究한 걸 雙方會談인 것 만큼 充</p>

우 리 측	北 측
<p>만나서 나머지 問題를 討議를 하자고 얘기가 돼서 案을 가지고 나왔음.</p> <p>물론 우리가 名稱問題도 討議를 하지는 立場이지만, 名稱問題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난해에 나온 얘기만 가지고 맴도는 것 보다는 앞으로도 한번 나가보고 앞으로 나가서 다른 問題를 討議한 뒤에 다시 되돌아가서 討議해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임.</p> <p>(2 - 討議 - 47~ 48)</p>	<p>分히 研究할 수 있는 餘地를 남겨 가지고 가서 研究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전번에 우리가 提起했던 것과 貴側이 提起했던 것과를 對比해 볼 때 이런 건 우리가 正當하다 或은 이것은 이것으로 修正한다, 이렇게 해야 함.</p> <p>(2 - 討議 - 48)</p>
<p>貴側에서 우리가 提案한 「 KOREA 」라는 名稱을 받아주시고 또 貴側에서 내놓은 우리말 表記 「 고려 」라는 것을 提案했습니다만 이것을 單獨으로 決定할 수 있는 問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음.</p> <p>그래서 가까운 時日內에 우리가 이 名稱 問題를 매듭짓는데 서로 誠意를 表示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함.</p> <p>(2 - 討議 - 54)</p>	<p>오늘 會談에서 唯一팀 名稱問題를 完全히 解決할 수 있는 劃期的인 修正案을 다음과 같이 내놓으려고 함.</p> <p>『唯一팀 名稱은 우리말로 「 고려 」로 하고, 英語로는 「 KOREA 」로 한다』 조선말로는 「 고려 」라 하고 英語로는 貴側이 提起한 「 KOREA 」로 함.</p> <p>우리의 이 새로운 修正案은 雙方的 提案을 折衷해 내놓은 것이지만 事實上에 있어서는 우리가 大幅 讓步한 것임.</p> <p>(2 - 討議 - 52)</p>

우 리 측	北 측
<p>우리 측 올림픽委員會를 代表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어디까지나 裁量을 넘는 그러한 意思表現은 輕率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p> <p>그래서 貴側에 대한 意見도 제가 充分히 듣고 또 貴側에서 우리側의 提案도 考慮해서 이런 提案을 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關係者들의 意見을 尊重해서 좋은 方案을 한번 研究해서 그래서 다음에 얘기했으면 함. (2 - 討議 - 55)</p>	<p>國際競技때 選手團 名稱으로 通用되는 比重을 놓고 봐도 事實상 大會期間 公用語로 된 外來語 表記가 基本으로 通用된다는 건 自他가 다 아는 既定事實임.</p> <p>따라서 貴側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通用하게 하도록 한 우리의 修正案은 이 世上 그 누가 보고 들어도 우리의 통이 큰 讓步라는 것을 알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3)</p>
<p>「고려」의 名稱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韓國」이라든가, 「大韓」이라든가, 「新羅」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우리가 國際적으로 通用이 됐을 때도 北京에 가게 되면 그때는 「KOREA」라고 南北韓을 합쳐서 다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次元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貴側에서 提案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p>	<p>여기에서 우리 立場을 明白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고려」와 「KOREA」는 絶對로 分離할 수 없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5)</p> <p>우리가 내놓은 이 名稱問題에 대해서는 「고려」가 問題인데, 「KOREA」라는 것은 貴側에서 쓰던 名稱이니까 그건 더 말할 必要가 없고 실제 우리도 이 問題에 대해서 많이 研究를 해 봤는데 이 「고려」外에는 더 좋은 이름이란 것이 없음. 정말 「고려」라는 말을 除外해 놓고 다른 名稱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음.</p>

우 리 側	北 側
<p>무슨 不當하다는 것은 아님.</p> <p>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折衷案을 내놓았으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時間을 주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7)</p>	<p>이것 以上 明白한, 더 正確한 이런 國號가 없다는 것을 아마 明白히 하셔야 될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2-討議-56~57)</p> <p>表現法에서도 조선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外來語로 표현하는 것이나 이제 다 一致시켜야 옳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7)</p>
<p>오늘 貴側에서 우리말 表記로 「고려」와 英語로 「KOREA」, 折衷案 내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發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p> <p>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대뜸 여기서 貴側에서 내놓은 것은 좋다, 우리 側에서 내놓은 것은 無條件 貴側에서는 相議도 안해보고 받아 주십시오 하고 固執하는 것은 아닌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59)</p>	<p>貴側에서 그렇게 하라고 勸告하는 것이 아니라 唯一팀 構成方案 問題를 討論하면 名稱問題는 다시 修正案이 提起될 수도 있고 또 爭論이 될 수도 있으니까 事實은 會談을 잘 成事시키고 빨리 우리가 달리는 式으로 하자면 이런 問題도 다 包括해서 討論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60)</p>

나. 選手團 團旗

우 리 側	北 側
<p>選手團의 團旗는 흰색바탕에 綠色 韓半島地圖를 넣고 그 아래에 로마字 「KOREA」를 表記함.</p>	<p>흰색바탕에 黃土色 우리나라 地圖를 그려넣고 그 아래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KORYO>라고 쓴 것발로 함.</p>
<p>(1 - 基調-26 , 2 - 基調-14)</p>	<p>(1 - 基調- 20)</p>
<p>흰색을 내세운 것은 물론 貴側에서 말한 것과도 共通點이 있는 것이지만, 우선 옛부터 우리 겨레는 白衣民族이라고 하여 흰옷을 좋아하고 純潔을 좋아하고 그래서 흰색을 우리 겨레의 象徴으로 表現한 것이고 그 다음 地圖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니다만 韓半島地圖에 綠色을 넣는 것은 希望을 이야기한 것임.</p>	<p>흰색바탕은 우리民族의 깨끗한, 순수한 白衣同胞 또 우리民族이 單一民族이라는 뜻에서 흰색바탕을 두었고 바탕의 가운데에 朝鮮地圖를 그린 것은 統一된 하나의 疆土 또 統一된 하나의 祖國을 指向해서 우리民族이 北南唯一팀이라는 것을 世上萬邦에 시위하기 위해서 朝鮮地圖를 그렸음.</p>
<p>결국 民族의 念願인 祖國統一이라고 하는 여기에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生命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貴側에서 말하는 唯一팀이라든가 우리側에서 말하는 單一팀이라는 것이 새로이 탄생되었을 때에 우리 民族의 念願을 成就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希望과 새 生命이 솟아난다는 뜻에서 푸른색을 넣은 것임.</p>	<p>이 아래 英文字로 쓴 푸른색깔 또는 붉은색깔은 우리側의 것발에도 그 색깔이 包含되어 있고 貴側의 것발에도 包含되어 있는 색깔일 뿐만 아니라 五輪에도 表示되어 있는 색깔이라는 것을 考慮해서 唯一팀의 것발을 民族의 特性和 民族의 志向과 目標로 했음. 그 다음 여기 朝鮮地圖의 黃土色 이 것은 우리나라 土壤의 特色을 反映하고 있음.</p>
<p>(1 - 討議- 45)</p>	<p>(1 - 討議- 44)</p>

우 리 側	北 側
<p>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地圖를 갈라놓고 그려 놓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單一팀 만들면서 지도에다가 두 색깔 갖고 나가는 것은,우리도 원하지 않으며 單一팀 만들어 가면서 우리 겨레의 象徴,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韓半島地圖를 두가지 색깔로 하여 나간다는 것은 우리도 拒否하고 싶음.</p>	<p>地圖의 색깔問題 가지고 서로 意見이 좀 相異되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린 색깔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게 아니고 우리 風土 그대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接受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理解하면 됨.</p>
<p>단, 어느 색깔을 擇하느냐 이것은 一長一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꼭 貴側에서 내세운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세운 색깔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p>	<p>또 貴側에서 내놓은 색깔은 「綠色」으로 하는데 우리 民族의 장래의 志向과 希望을 象徴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民族의 휘황한 장래를 象徴한다는 그런 側面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함.</p>
<p>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절충하되 문제는 團旗가 이것만 가지고 合意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밑에 呼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側의 색깔을 貴側에서 좋다고 하면 그 밑에 呼稱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또 貴側의 것도 쓸 수도 있는 것임. 이 問題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음.</p>	<p>그래서 그러한 象徴을 하는게 그 밑에 文字表記가 있기 때문에 表記하는 색깔을 그런 색깔로 하시면 그 뜻도 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놓고보면 이 깃발문제에 대해서 相互異見을 가질게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이렇게 해서 合意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임.</p>
<p>(1- 討議- 48)</p>	<p>(1 - 討議 - 47 ~ 48)</p> <p>唯一팀 깃발문제에서는 보다 우리 體育式으로 前進, 「흰색바탕, 朝鮮地圖를 그려넣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唯一팀</p>

우 리 側	北 側
<p>색깔문제는 보는 見解에 따라 다름. 색깔문제에 대해 貴側에서 주장하시는 理論도 背景이 다 있고 우리側에서 말하는 것도 다 背景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說往說來하기 보다는 原則的인 큰 두 가지 문제가 合意되었으니까, 地圖의 문제는 나중에 地圖의 색깔문제하고 밑의 글자에 들어가는 색깔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名稱問題가 결정이 되면 그 때에 서로가 좀 더 研究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曰可曰否 하지 말고 研究하는 時間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49)</p>	<p>의 깃발은 세상에 형틀이 나왔음. 흰색바탕에 朝鮮地圖를 그리는 것이 우리 唯一팀, 우리 民族의 唯一팀 깃발이다 하는건데, 거기에 이제 무슨색깔을 넣느냐 또 무슨 命名을 하는가 이제 그것만 남았는데 깃발은 그렇게 口頭로 이제 完全히 合意한거로 宣布했으면 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50)</p>
<p>雙方의 意見을 可及的이면 尊重해 가면서 折衷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음. 그래서 지난번에 貴側에서 國旗問題에 대해서 黃土色으로 내놓았고 우리는 綠色으로 내놓았는데 서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는 차에 만나다 보니까 黃土色과 이 綠色이 對比가 되었음. 이것은 뭐 雙方에 다 一理가 있는 이야기니까 그것을</p>	<p>雙方에 다 負擔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合理的인 案으로서 地圖의 색깔을 黃土色도 아니고 綠色도 아닌 하늘색으로 하고 地圖 밑에 아무런 外來語表記도 하지 말자는 것임. 우리가 地圖의 색깔을 하늘색으로 하려는 데는 우리 民族의 기상을 보여 주는 白頭山天池의 푸른 물결과 漢拏山 백록담의 푸</p>

우 리 側	北 側
<p>종합해서 配合을 하게되면 보다 좋은 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圖案家들이 보는 이 專門性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낫다고 보고 있음.</p> <p>그래서 오늘 貴側이 黄土色을 이미 提示를 했으니까 거기에 綠色을 어떻게 加味해서 우리나라 地圖를 效果的으로 團旗에 넣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意見を 내놓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0)</p> <p>地圖의 線을 綠色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흰색바탕에 一部分을 綠色으로 하고 地圖를 黄土色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雙方의 圖案家들이 모여서 색깔이 二重색깔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調和를 시키면 우리나라 地圖를 잘 그려낼 수 있을까 研究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定한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1)</p> <p>지금 黄土色도 나왔고 또 綠色도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큰 마음으로 貴側에서</p>	<p>큰 물결을 깃발에 象徴하려는 崇高한 뜻이 담겨져 있으며 民族의 希望과 抱負, 平和를 象徴하는 뜻도 內包되어 있음.</p> <p>우리가 唯一팀 깃발에 外來語表記를 구태여 하지 않아도 우리 나라 지도를 그린 條件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北南唯一팀의 깃발이라는 것을 인차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 나라 地圖의 색깔을 하늘색으로 하고 地圖 밑에 아무런 外來語表記도 하지 말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案에 貴側도 同意하리라 봄.</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23)</p> <p>우리가 깃발問題를 討論하는 것은 象徴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色調和 무슨 그리고 하는 것은 물론 畫家들이나 圖案家들이 하는 것임.</p> <p>그런데 貴側에서는 깃발問題는 이제 圖案家들이 그려 놓은 것을 보고 어느게 좋은가 擇하자고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1)</p>

우 리 側	北 側
<p>提案한 黃土色도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綠色을 加味해서 서로가 합치는, 그 圖案上에 技術的으로 어떻게 調和를 이루어서 團旗를 만드는데 어떤 成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함.</p>	<p>事實上 이 地圖에서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가 黃土色, 貴側에서 綠色 뭐 이런 것은 事實上 큰 意義가 없음.</p>
<p>(2 - 討議-32)</p>	<p>이런데로부터 그렇고 重要하게는 말하자면 이 會談을 成事시키고 民族앞에 무엇인가 기쁜 消息을 주자는데로부터 우리는 우리 色도 主張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貴側色도 같이 함께 해서 公明正大하게 푸른색으로 할 것을 제의한 것임.</p>
<p>색깔問題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配合하는 方向에서 그때 圖案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인데 兩側에서 여러 專門家들이 볼 때 그래도 서로 이렇게 討論해가면서 무엇인가 提示되는 것이 합쳐지는 이러한 過程에서 이루어져야 됨.</p>	<p>(2 - 討議 - 32 ~ 33)</p>
<p>兩側의 색깔을 합치게 되면 무언가 地圖를 象徵하는 좋은 方法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면 우리가 한번 共同委員會라든가 이런데서 專門家들끼리 모여서 이것 合意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함.</p>	<p>地圖야 거의 다 된 것으로 하자 이렇게 輪廓이 드러났으니까 색깔問題라는게 무슨 큰 또 별거 아닌 것이고 그래서 색깔을 雙方의 色이 아닌 第3의 색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外來語 表記도 名稱問題가 事實上 여태까지 우리 會談때 繼續 끌어온 問題인데 名稱을 넣지 않아도 깃발에는 地圖만 있으면 아 그거 唯一팀이구나 하는 것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 오늘 뭐 이것 하나야 되는 것임.</p>
<p>(2 - 討議 - 34)</p>	<p>(2 - 討議 - 33)</p>
<p>地圖도 예를 들면 우리 남쪽에는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다 그려 넣는</p>	

우 리 側	北 側
<p>것도 뭐하고 그러니까 地圖도 우리가 圖案的인 面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 나라의 우리겨레의 땅을 어떻게 그려내느냐 하는 것은 圖案 專門家들이 역시 보는 立場을 우리가 無視 못하는 것임.</p>	<p>그러니까 깃발問題라면 우리 本 會談에서 討論하지 말고 앞으로 共同事務局에서 하자 이것입니까?</p> <p>아니, 地圖는 象徵인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4)</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4)</p> <p>貴側에서 내놓은 黃土色의 特徵도 있고 우리 綠色의 特徵도 있으니 그 特徵끼리 한번 합쳐서 地圖에 그려보았으면 해서 貴側의 意見도 받아 들이고 우리側의 意見도 이렇게 折衷을 해본 것임.</p>	<p>푸른색은 第3의 색갈인데 그 뜻은 맑고 푸른 祖國의 하늘, 그다음에 平和를 象徵하고 또 우리가 더 民族을 結付시켜야 한다면 저 白頭山의 맑은 天池물 그대로 한라산 백록담의 푸른 물과 이어져서 統一된 未來를 象徵하는 것으로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5)</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35)</p> <p>색갈問題는 單一팀을 象徵하는 것이니까 事實 重要한 問題이기는 하나 그 색갈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雙方이 意見을 提示해서 서로 尊重을 하는 立場에서 이것을 合意를 보려고 한다면 쉽사리 合意할 수 있는 問題라고 봄.</p>	<p>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側에서도, 그쪽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1月31日附 要求도 지금 깃발과 노래를 빨리 보내라는 것임.</p>
<p>그래서 이 색갈이 지금 푸른색이 좋다 나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일단 貴側에서 그렇게 提示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p>	<p>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黃土色도 아니고 綠色도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提示해서 이것 깃발만이라도 빨리 決定을 짓자는 것이 우리의 意圖임.</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37)</p>

우 리 側	北 側
<p>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임. (2 - 討議 - 36)</p>	<p>1次會談때 우리는 黃土色을 내놓았을때 貴側에서는 綠色이 좋다고 主張하고 우리는 또 黃土色이 좋다고 主張했으니깐 兩側이</p>
<p>흰색바탕에 綠色 세로帶를 두르고 그 위에 黃土色 地圖를 그리게 되면 貴側의 意思도 우리가 받아 들이고 우리가 主張한 綠色도 이렇게 加味가 되어서 좋음.</p>	<p>公正하게 接受될 수 있는 第3의 색깔을 擇 하자 이래서 푸른색을 定한 것임. (2 - 討議 - 41)</p>
<p>그 다음에 또 接近할 수 있는 것은 地圖 밑에 아무 것도 하지말자는 것임.</p>	<p>名稱을 안 쓴다는 것, 흰색바탕이라는 것, 朝鮮地圖를 그린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p>
<p>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놓고 이것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한번 이것을 檢討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임. (2 - 討議 - 39 ~ 40)</p>	<p>서도 또 朝鮮地圖를 그린다고 이렇게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색깔을 하되 同一한 색깔을 똑같이 칠한다. 이것까지 口頭合意된 셈임. (2 - 討議 - 40)</p>
<p>색깔은 우리도 두가지 方案을 이렇게 내놓았고 貴側에서도 두가지 方案을 내냈는데 오늘 合意할 수 있는 것은 團旗, 뭐냐 하면 貴側에서 말하는 것발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넣기로 한다는 것임. (2 - 討議 - 41)</p>	<p>地圖에다가 새 파란 綠色을 죽 내리고 黃土色 地圖를 이렇게 색깔을 했는데, 그 綠色이 내려오고 黃土色이 들어가니까 地圖 색깔이 조금 색이 좀 흰색바탕에 있는 것 보다는 鮮明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이미 討論한대로 「흰색바탕에 朝鮮地圖 單一色을 넣자」 이렇게 이제 合意되었으니깐 明白</p>
<p>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研究해서 決定하기로 함. (2 - 討議 - 43)</p>	<p>하니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함. (2 - 討議 - 42)</p>

다. 選手團 團歌

우 리 側	北 側
<p>選手團의 團歌는 우리 民族의 民謠인 「아리랑」으로 함.</p>	<p>아리랑으로 하되 1920年代 북쪽과 남쪽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함.</p>
<p>(1 - 基調 - 26 , 2 - 基調 - 14)</p>	<p>(1 - 基調 - 20)</p>
<p>우리가 世界 여러나라에 가면 많은 同胞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겨레라고 하는 것을 意識하는 것은 김치이고 이 아리랑임.</p>	<p>우리 「아리랑」은 20年代 北과 南에서 다같이 부르던 이런 「아리랑」으로 또 우리 民族이 그토록 愛唱하던 노래, 아마 뭐 다른 것 없음.</p>
<p>單一팀 노래로서 아리랑을 同時에 約束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시 民族의 피는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否定할 수 없는 歷史의 獰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現場에서 확인한 것임.</p>	<p>羅雲奎先生의 「아리랑」의 主題曲임.</p>
<p>(1 - 討議 - 52)</p>	<p>(1 - 討議 - 51)</p>

라. 選手團 構成

우 리 측	北 측
<p>①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서 말고 副團長은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음.</p> <p>② 任員 및 選手構成은 OCA憲章 및 該當 國際競技聯盟規則에 따름.</p> <p>③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이 監督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되 具體的 任員數는 雙方合意에 따라 定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7)</p>	<p>《指導員 및 保障成員》</p> <p>① 共同訓練段階에서 팀種目들에 限하여 北과 南은 種目當 (男女區分된 種目は 男女種目) 각기 2명씩의 指導員을 選拔하며 個人競技種目에서는 北南이 均衡을 維持하면서 必要한 數만큼 選拔함.</p> <p>② 競技大會에 參加하는 指導員數는 亞細亞競技大會, 技術規程에 準하여 北南間의 指導員數의 均衡을 維持하도록 함.</p> <p>③ 保障成員 (의사, 안마사, 연구사, 기제 관리공, 배수리공, 요리사 등)들의 選拔과 그 數는 따로 討議合意하여 執行함.</p> <p>《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 選拔時日》</p> <p>① 共同訓練段階의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選拔은 늦어도 1989年 8월까지 끝내도록 함.</p> <p>② 競技大會에 參加하게 될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들의 最終選拔은 팀種目は 1990年 5월까지, 個人競技種目は 1990年 7월까지 끝내도록 함.</p> <p>《競技大會에 參加할 選手團指揮部》</p> <p>①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하는</p>

우 리側	北 側
<p>合同訓練에 參加할 選手選拔은 南北 各 其 決定토록 하며 그 人員數는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定하게 될 競技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할 수 있음.</p> <p>(2 - 基調 - 15)</p> <p>① 大會에 參加할 選手・任員 등 選手團의 構成은 豫備申請 마감일인 1990年 6月 22 日 前까지 完了함.</p> <p>② 選手 및 任員構成은 OCA憲章 및 該</p>	<p>選手團指揮部에는 北과 南에서 各기 選出되는 共同團長 2名을 두어 選手團을 管理하고 代表하도록 함.</p> <p>② 副團長, 事務長도 같은 方法으로 2名씩 됨.</p> <p>③ 選手團과 關聯되는 중요한 問題에 對하여서는 共同團長, 共同副團長, 共同事務長들이 合意하여 決定하도록 함.</p> <p>④ 選手團에는 總指揮部와 그 아래에 種目別 指揮部를 됨.</p> <p>(1 - 基調 - 21~22)</p> <p>共同訓練에 參與하는 選手의 數는 亞細亞競技大會 組織委에서 制限한 數대로 兩側이 함.</p> <p>(2 - 討議 - 101)</p> <p>亞細亞競技大會에 最終 參加하는 選手團 構成에서는 均衡을 保障함.</p> <p>(2 - 討議 - 100)</p>

우 리 側	北 側
<p>當 國際競技聯盟規則에 따름.</p> <p>③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 서 말고 副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음.</p> <p>④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이 監督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되 具體的 任員數는 雙方 合意에 의해 定함.</p> <p>⑤ 大會에 參加할 選手團은 可能的 限 南北間에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6)</p>	

마. 選手團 團服

우 리 側	北 側
<p>① 團服의 디자인은 雙方 專門家들의 諮問을 얻어 決定함.</p> <p>② 團服의 標識는 雙方이 合意한 團旗 및 選手團 呼稱에 따름을 原則으로 함.</p> <p>③. 團服의 製作經費는 共同負擔으로 하되 雙方 合意에 따름.</p>	<p>唯一팀의 服裝, 運動服 등의 形式, 색깔, 標識 등은 共同事務局에서 決定함.</p>
<p>(1 - 基調 - 27)</p>	<p>(1 - 基調 - 23)</p>

바. 選手選拔

우 리 측	北 측
<p>〈 選手選拔은 南北의 區別없이 種目別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 〉</p> <p>① 全 種目に 대해 選手를 選拔함.</p> <p>② 選手選拔을 위해 交換競技를 實施함.</p> <p>③ 選手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 以上 實施함.</p> <p>④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함.</p> <p>⑤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雙方間에 協議·決定함.</p> <p style="text-align: center;">(1 - 基調 - 27)</p>	<p>《 選手選拔原則 》</p> <p>①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p> <p>②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함.</p> <p>③ 北과 南은 될수록 唯一팀에 種目別로 北과 南의 選手 및 指導員들을 함께 包含시키는 原則에서 選拔함.</p> <p>《 選手選拔方法 》</p> <p>(1) 唯一팀構成 準備段階의 共同訓練에 參加할 選手選拔</p> <p>① 北과 南이 각기 決定하도록 함.</p> <p>② 모든 種目別 選手選拔은 北과 南이 各 各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競技參加 定員數 정도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必要한 人員數를 協議하여 選拔하도록 함.</p> <p>③ 對象訓練을 必要로 하는 種目에 對해서는 該當種目 北南代表들이 따로 協議하여 選手數를 決定하고 選拔하도록함.</p> <p>(2) 唯一팀選手選拔</p> <p>① 記錄種目 境遇에는 共同訓練期間 여러</p>

우 리 측	北 측
<p>『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들을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하니까, 例를 들어서 南과 北의 選手들이 게임을 해서 이</p>	<p>차례 進行한 選拔競技의 記錄을 綜合적으로 考慮하면서 最終選拔競技記錄을 위주로 하여 選拔함.</p> <p>② 採點制 勝負評價種目は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이 함께 參加하는 公開招請競技를 進行하여 選拔함.</p> <p>③ 맞붙어 勝負를 가르는 種目들은 共同訓練期間 實力과 이미 進行한 選手들의 國內外競技戰績을 考慮하여 該當種目の 北南代表들의 協議의 方法으로 가능한 北南의 均衡을 보장하는 方向에서 選手들을 選拔함.</p> <p>④ 北南 어느 한側에서만 種目を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側이 該當種目に 대하여 唯一팀으로 出戰하도록 함.</p> <p>⑤ 한개의 細部種目に 2名의 選手가 參加하는 경우에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包含하도록 함.</p> <p>(1 - 基調 - 20 ~ 21)</p> <p>『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들은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이 뜻은 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 南에서 가장 優秀한</p>

우 리 側	北 側
<p>긴 팀 全部가 어느 한쪽으로 構成이 되는 것이 아닌가?</p> <p>그러니까 여기서는 南과 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라는 의미는 하여튼 게임을 해 봐서 이긴 選手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쪽에서 優秀한 選手, 北쪽에서 優秀한 選手 이렇게 해서 한팀을 構成한다는 그런 意味인가?</p>	<p>選手 이렇게 唯一팀을 構成해야 民族의 슬기와 榮譽를 높일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제 選拔戰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選拔方法에 들어가 있음.</p>
<p>(1 - 討議 - 54)</p>	<p>그러니까 이 原則에 따라서 選拔戰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뒤에 方法이 있다는 얘기임.</p> <p>(1 - 討議 - 55)</p>
<p>그러니까 가장 優秀한 選手를 어떠한 方法으로 뽑아 내느냐, 選拔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問題의 核이 된다고 생각함.</p>	<p>選拔方法이 核임. 그래서 우리는 첫 條項에 넣었음.</p>
<p>(1 - 討議 - 56)</p>	<p>(1 - 討議 - 56)</p>
<p>이건 이제 우리가 選拔하는데 하나의 基本的인 常識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음. 나머지는 基本精神인 것임.</p>	<p>두번째 原則,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會談 卓에 마주 앉을 때야 이것이 貴重하기 때문에 마주 앉은 것이 명백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다른 意見이 없으리라고 생각함.</p>
<p>(1 - 討議 - 56)</p>	<p>(1 - 討議 - 56)</p>
<p>사실 選手選拔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體育人들간에 스포츠競技를 통</p>	

우 리 側	北 側
<p>해 가지고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한다, 體育을 하는 사람이면 이것이면 전부이지 거기에 和解와 團合의 原則 등등이 必要한 것은 아니라고 봄.</p> <p>우리側도 和解와 團合의 精神에 의해서 團一팀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南과 北이 함께 參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單一팀을 구성을 하자 해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위해 努力을 하는 것임.</p> <p>그래서 이제 우수한 選手를 選拔을 한다는 한가지 原則을 큼직하게 정해놓으면 그것으로足하지 貴側에서 말하는 것은 會談에 임하는 基本精神이지 選手選拔에만 이 原則을 適用을 하고 다른데는 또 이 原則을 適用 안할 것도 아닐 것임.</p> <p>그러니까 이것은 南北間에 基本的으로 마음속에 다져두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具體的인 方法을 論議하기 위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鐵則이다 하고 내세울수 있는 것은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한다는 이 原則 하나면 體育人들로서는 足하다고 생각됨.</p>	<p>앞으로 唯一팀을 構成하는 過程에서 競技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서로 여러 複雜한 問題들이 많이 提起될 수 있는데 이러한 問題들을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이런 基本尺度를 民族共同的 利益에 符合되게 處理해 나가자 이렇게 規定하는 것이,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아주 妥當하다고 생각함.</p> <p>지난기간 우리가 여러차례 國際競技에 나가서 서로 競技를 하는 것들 보면 경기하다가 서로 衝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피하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實務的 問題들을 討論하는데서 꼭 이런 자를 規定해 놓고 이 原則에서 우리가 討論해 나가면 問題討論이 바르고 옳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意味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임.</p> <p>우리가 北과 南은 될수록 唯一팀에게 種目別로 北과 南의 選手들을 다같이 넣는 그런 原則에서 하자고 規定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唯一팀을 構成해서 물론 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나가지만 이 競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體育競技가 있게되고 이러한 條件에서 우리 民族의</p>

우 리 측	北 측
<p>우리가 이 原則을 너무 複雜하게 設定하지 말자 그런 얘기임. (1 - 討議 - 57~ 58)</p>	<p>體育을 빨리 장려하고 發展시켜야 되겠다는 것임. (1 - 討議 - 59)</p>
<p>이 和解와 團합의 原則이라는 것은 우리가 和解와 團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單一팀을 論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基本精神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選手選拔原則이라는 것도 單一팀 構成 自體가 民族的인 和解와 團합을 指向하는 그런 方向으로 고려되어야지 굳이 選手選拔原則에다만 이걸 두어 「무슨 原則이다」라고 할 必要가 없으므로 雙方이 基本的인 精神을 서로 確認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임. (1 - 討議 - 62)</p>	<p>選手選拔問題가 지금 討議하는데서 核임. 그 以外의 問題는 크게 選手選拔問題에서 이 原則을 定立함으로써 一定한 基準을 만들어 놓아 이 基準에서 脫線이 없도록 하자는 意圖임. 最優秀選手選拔의 原則, 民族의 志向을 反映하는 原則, 選手選拔에서 複雜한 問題가 없도록 말썽없이 하자는 이 方法論的 原則 등 세가지에 반대할 理由가 없을 것 같음. (1 - 討議 - 62~ 63)</p>
<p>貴側에서 選手選拔方式을 제시하고 우리側에서 우리의 選手選拔方式을 제시 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比較해서 좋은 點을 찾으려면 되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團합과 團結의 精神아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 구태여 選手選拔하는데서 더 強調하지</p>	<p>반대 한다는 뜻에서 그런게 아니고 보면 政府間이나 이런데서도 論議가 되고 討議가 되어서도 마지막에 文件上으로 남기는게 重要한 것이니까 이것을 整理해 놓아도 特別히 다른 건 없을 것임. (1 - 討議 - 63)</p>

우 리 側	北 側
<p>않아도 된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3)</p> <p>지금 單一팀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原則에 대한 얘기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項에 대한 숨어있는 內容이 노출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런 誤解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음.</p> <p>그래서 選手選拔原則이라는 것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選手選拔方法에 대해서 具體적인 것을 말해보면 貴側에서 誤解하고 있는 部分이 解消되지 않을까 생각됨.</p> <p>따라서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까지를 注意見을 말해 보고 나서 綜合적으로 討論을 해서 結論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3)</p> <p>그런 精神은 이미 다 우리가 表現을 한 것이므로 이제 選拔方法에 대해서 具體적인 方案이 나와서 서로 다른점만 좁히는데</p>	<p>選拔方法에서 잘 풀리도록 脫線되지 않도록 하자면 무슨 問題를 設定하거나 또 어떤 事業을 일단 시작하거나 할 때는 기준자(尺)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자가 바로 原則임.</p> <p>原則을 놓고 볼 때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도록 한다는데야 다르게 없는데, 이걸 넣었다해서 唯一팀이 찌그러지는게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하여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데서 놓칠 것도 없는 것임.</p> <p>또 貴側에서도 이런 意向을 表示해서 마주 앉은 만큼 이걸 넣어도 利로우면 利롭지, 害롭지는 않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1 - 討議 - 64)</p> <p>貴側에서 選手選拔原則을 이때까지 우리가 제기한 걸 미리 받아서 研究하고 나왔다면 대답이나 이해가 쉬울텐데, 오늘 첫 會談에 마주 앉아서 보다 보니까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뒤에 무엇이 숨어있나 생각할 수도 있음.</p> <p>選手選拔方法도 우리側 意見이 다르고</p>

우 리 측	北 측
<p>뜻을 모으자는 것임. 南北韓에 다 寄與할 수 있는 이러한 選手들을 選拔한다는, 雙方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立場에서는 競技종목에 대해서 交換競技를 통해 優秀選手를 가려냈으면 좋겠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4)</p> <p>서로가 提案한 걸 書面을 통해서 서로 確認할 수 있으니까 가서 研究해서 다음에 討論하기로 함.</p>	<p>貴側意見이 다르고 또 즉석에서 研究해 보지 못하고 交換해서 봐야 할 形便이고 하니 우리가 提起한 案을 貴側에서 더 研究하시고 貴側에서 提起한 것 우리가 더 研究하도록 時間을 좀 얻기로 함.</p> <p>그래서 오늘 會談은 우리가 세번째 案件까지 討論한 것으로 하고 다음 會談에서 네번째 案件부터 討論해서 진지 하게 研究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5)</p>
<p style="text-align: center;">(1 - 討議 - 66)</p> <p>① 全 種目에 대해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함.</p> <p>② 選手選拔을 위해 合同訓練을 實施하며 選拔戰을 통해 大會에 參加할 選手를 選拔함.</p> <p>③ 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 以上 實施함.</p> <p>④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當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p>	<p>北과 南의 選手들이 한데 어울려서 共同訓練을 하다가 選手를 選拔해야 그동안 쌓았던 不信과 誤解, 對決意識에서 벗어나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寄與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좋은 經驗과 技術을 互相 交換해서 民族의 體育技術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임.</p> <p>뿐만 아니라 共同訓練을 하면서 選手들이 訓練能力과 競技能力, 生活全般을 了解한데 기초하여 民族의 슬기와 영예를 宣</p>

우 리 측	北 측
<p>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함.</p>	<p>揚할 수 있는 가장 優秀한 選手들을 選拔해낼 수 있는 것임.</p>
<p>⑤.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함.</p>	<p>그러나 한두번의 選拔競技를 통하여 選手를 選拔하게 되면 北과 南사이의 對決意識을 助長할 수도 있고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實現하는데 否定的인 作用을 할 수도 있으며 最優手選手를 選拔하는데도 制限性이 있다고 봄.</p>
<p>(2 - 基調 - 15)</p>	<p>(2 - 基調 - 24)</p>
<p>우리側이 이번에 選手選拔과 訓練 그리고 選手團 構成 등과 關聯해서 貴側이 잘 使用하는 用語대로 劃期的인 折衷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왔으므로 이 問題를 우선 討議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됨..</p>	<p>貴側에서는 오늘 選手選拔 方法을 研究하셔서 案을 提起했는데 基調演說에서 우리는 그걸 처음 들었음.</p>
<p>貴側에서도 選手選拔問題가 核心이라고 強調를 했고, 또 事實 體育人들간의 會談에서는 選手選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어떻게 單一팀을 構成할 것이냐 하는게 가장 重要한 問題中的의 하나라고 우리가 共感을 하고 있음.</p>	<p>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되겠음. 首席代表先生이 말씀하는걸 나는 몇자 中心만 적었는데 아직도 깊은 把握이 안되고 있음.</p>
<p>(2 - 討議 - 47)</p>	<p>(2 - 討議 - 48)</p>
<p>지금 選手選拔 原則에 대해서 두번째 項을 『보다 優秀한 選手를 뽑되, 南北의 均</p>	<p>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 原則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誤解와 不信이 없이 精神的인 問題, 모든 事業組織하는데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이냐 訓練하는 것이냐 이</p>

우 리 측	北 측
<p>衡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3項에 提示가 되어 있으므로 2項에다 또 그것을 집어 넣을 理由는 없다고 봄.</p> <p>3項에 말하자면 南北間에 均衡을 잃지 않는 範圍內에서 하자고 하는 그 案을 넣으셨는데 굳이 또 다시 和解와 團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넣어야 될 무슨 特別한 理由가 있는 것인가?</p> <p>(2 - 討議 - 62~ 63)</p> <p>貴側에서 提起한 「北 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會談을 始作하는 이 自體는 이러한 精神에서 出發하는 것이니까 選手選拔 그 항목에는 이것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임.</p> <p>(2 - 討議 - 64)</p> <p>「大會에 參加할 選手團을 可能的 限 南北間에 均衡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 그러면 그것은 原則에 두가지다 들어가는 것임.</p>	<p>런데서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選手를 뽑는데서 均衡을 保障하자는 原則에서 하자 이렇게 定立된 것이므로 이들간 類似性은 있지만 그러나 事實上 가놓고 보면 內容上에는 分離點이 있음.</p> <p>(2 - 討議 - 63)</p> <p>앞으로 여러 種目들에서 選拔하는 過程에 는 실제 우리 體育經驗者들이니까 또 實踐的으로 이제 競技를 하다가는 서로 誤解가 있을 수 있고 또 誤解가 심해지면 서로 衝突이 있을 수도 있음.</p> <p>그래서 이런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事項들을 明記하는데서 또 우리 모든 事業을 展開해 나가는데서 항상 이 原則을 놓고서 事業을 展開해 나가야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임.</p> <p>(2 - 討議 - 66)</p> <p>우리 측의 唯一팀 選手選拔에서 1, 2, 3項들이 誤解나 不信이나 衝突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精神에 根據해서 이런 것들을 다 明記했음.</p>

우 리 측	北 측
<p>南과 北 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 그 精神은 이미 이 會談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것이니까 選拔問題에서는 可及的이면 實務的인 그러한 條項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음.</p>	<p>貴側에서 主張하듯이 合同訓練을 해서 하자, 選拔戰은 처음부터 北과 南이 選拔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合同訓練을 각기 뽑아서 하자, 이제 그런 精神이 여기에 包含되어 있음.</p>
<p>(2 - 討議 - 65)</p>	<p>그러니까 우리나라 貴側에서 다 그런 뜻을 여기 보면 明記되었고 이러한 것을 意味해서 이것을 넣은 것으로 終局은 어떻게 하든가 이번에 唯一팀 選拔問題를 다 좋게 成事시키자는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봄.</p>
<p>우리가 選手選拔을 할려면 具體的인 方法에 合意를 보면 되는 것임. 사실 그자 (尺)를 만드는 것도 이제 明白하게 짤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이 誤解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問題 發生할 소지도 미리 除去하는 것이지 이제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밖에 없는 막연한 잣대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건 고무줄이지 사실 잣대가 아닌 것임.</p>	<p>(2 - 討議 - 67)</p>
<p>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問題는 그런 결로 하지 말고 明白하게 하자 이런 얘기임.</p>	
<p>따라서 會談 大原則으로 文書作成할 적에 原則은 序論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選手選拔로 바로 들어가는게 좋겠음.</p>	<p>(2 - 討議 - 69)</p>

우 리 側	北 側
<p>들어내는 것 보다도 그 쪽에 方法을 다 집어 넣으면 되는 것임.</p>	<p>그러면 아예 이 選手選拔原則 이것 뽑아 버리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原則이 라는 것을 아예 집어넣고, 이제 새기고 그</p>
<p>(2 - 討議-68)</p>	
<p>選手選拔 方法에 있어서 選手選拔을 위 해서 우리가 合同訓練을 實施하고 選拔戰 을 통해서 大會參加選手를 選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方法을 討論하면 되 는 것임.</p>
	<p>(2 - 討議-68)</p>
<p>그러니까 選手選拔을 위해서 合同訓練을 實施하고 그 다음에 選拔戰을 통해서 大會 에 參加할 選手를 選拔하며 選拔戰은 各種 目別로 서울과 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以上 實施하 자는 것임.</p>	<p>唯一팀構成 準備段階의 共同訓練에 參加 할 選手選拔이 처음에 選手戰을 하지 않고 北과 南의 選手가 함께 모여서 共同訓練을 하는 데, 축구를 實例로 들면 北에서도 가장 優 秀한 選手 20名, 南에서도 가장 優秀한 選手 20名을 뽑아서 합쳐서 共同訓練을 하는데 그것은 北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가 合意만 되면 南에서도 할 수 있고, 共 同訓練하다가 그 다음에 檢閱競技도 하되 共同訓練하면 北은 北대로 따로 訓練하라 南은 南대로 따로 訓練하라, 같은 곳 平壤 에 들어와 한다치면 이게 아니겠지요?</p>
<p>(2 - 討議-70 ~ 71)</p>	
<p>그것은 種目에 따라서 조금씩 差異가 있 음. 예를 들어서 球技種目인 경우에는 한세 번을 評價戰을 한다고 할 때에 3對0으로, 어느쪽이 3對0으로 이겼다 했을 때 몇% 를 진쪽에서 들여오느냐 하는 그런 式으로 우리가 選手選拔原則을 定할 수도 있을 것 이고 또 2對1로 이겼을 때는 몇%가 들</p>	<p>北 選手고 南 選手고 그저 합쳐서 하다 가 計劃에 따라서 한달쯤 訓練을 하다가 또 競技도 하고 또 두달쯤 訓練하다가 競技 를 하고 또 한 석달쯤 訓練을 하다가 競</p>

우 리 側	北 側
<p>어오느냐는 「프로티지」로 나누어 選手를 配合을 하는 그런 方法도 아마 있을 것임.</p> <p>團體戰인 경우에는 合同訓練을 오랜 期間하고 나서, 例를 들어 來年 3月부터 評價戰을 해도 별 支障이 없을겁니다만, 個人 競技 例를 들어 이제 體級別 競技, 유도라든가 복싱이라든지 또는 레슬링이라든지 이러한 競技들은 合同訓練을 다 끝내놓고 評價戰을 한다고 하는데는 좀 問題가 있음.</p> <p>잘 알겠지만 그 選手들은 體重을 한번 빼고 競技를 했을 때 그것이 回復이 되려면 적어도 한 2~3個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選手들의 體重 빼는 問題, 이것도 양쪽의 監督이나 코치團들 사이에서 研究가 되어가지고 時期決定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듦.</p> <p>그리고 體級別 競技는 유도같은 경우에 는 한판으로 이겼느냐 折半으로 이겼느냐 또는 優勢勝으로 이겼느냐에 따라서 競技力을 評價하는 方法이 다 다르므로 이 問題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것은 나중에 또 여기에 案件으로 提示가 되어 나오겠지만 「南北共同委員會」에서 具體的인 것은</p>	<p>技하고, 그건 또 訓練같이 하니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指導員들이 잘 보니깐 『응, 저 選手는 11番 位置가 不適當하다, 아무개는 몇번 位置가 適當하다』 이런걸 構想한 다음에 그 다음에 最終選手를 選拔해서 내보낸다 하는 이런 뜻으로 理解하면 됩니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72)</p> <p>지금 말한것 이렇게 理解가 되는데, 共同訓練을 모여서 하다가 1, 2차례의 檢閱競技를, 말하자면 貴側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選拔競技를 하는데 그러면 共同訓練은 함께 하다가 그러다가 選拔競技때는 北北選手, 南南選手해서 짝고 이렇게 하자는 그 뜻인가?</p> <p>그 問題에 差異點이 있는 것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2 - 討議 - 73)</p>

우 리 側	北 側
<p>研究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듬.</p> <p>(2 - 討議 - 72~73)</p> <p>競技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提起를 하였기 때문에 意見을 한번 말하겠음.</p> <p>選拔戰이라고 하는 것을 꼭 무슨 相對方 하과의 對決意識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느냐 하는 評價의 尺度를 우리가 마련해 보자는 것임.</p> <p>그런데 試合을 하지 않고도 가릴 수 있지 않느냐는 問題인데 그것은 專門家的인 立場에서 조금 問題가 있음. 왜그러냐하면 運動競技라고 하는 것이 試合할 때의 競技力하고 練習할 때의 競技力하고는 크게 差異가 있는 것임.</p> <p>人間이 가지고 있는 生理體力을 100 이라고할 때에 평소에 練習때 發揮하는 體力은 한 70% 내지 80% 밖에는 發揮가 안되는 것임.</p> <p>즉, 競技냐, 練習이냐에 따라서 體力의 動員尺度가 다름.</p> <p>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優秀한 選</p>	<p>選手選拔 方法問題에서는 오늘 貴側에서 修正案을 내놓아서 많은 側面에서 意見一致性을 가져왔음.</p> <p>貴側에서 우선 合同訓練을 하다가도 또 選拔戰을 하자, 그런데 北과 南에서 1回以上하자, 이렇게 提起하였는데 만약에 選拔戰이라는게 이게 어디까지나 北과 南의 競技이기 때문에 北과 南의 競爭意識, 對決意識을 고취하는 이런걸 꼭해야 되겠는가?</p> <p>앞으로 選手選拔戰을 꼭 한다면 拳鬪라든가 무슨 柔術이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맞붙어하는 種目を 意味하는데 이런거 꼭 이렇게 해야만 選手를 選拔하겠는가? 이것보다 더 좋은 方法도, 選手를 選拔하는 方法이 많은데 하물며 北과 南의 選手가 딱 요렇게 對決을 하면서, 말하자면 競技를 딱 붙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p> <p>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方案(2) 唯一팀選</p>

우 리 측	北 측
<p>手를 選拔해야 된다고 한다면 평소에 選手 個個人이 가지고 있는 100%의 能力을 다 發揮할 수 있는 그러한 方法을 가지고 評價를 해야 正確한 評價가 나오지, 練習때 70%나 80%밖에 能力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方法, 다시 얘기해서 訓練의 過程을 통해서 選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問題가 있음.</p>	<p>手選拔의 ①項, ②項, ③項에는 種目別 特性들을 考慮해서 이런걸 피하기 위한 原則이라고 할까 基本方法을 規定해 놓은 것임</p>
<p>(2 - 討議 - 77)</p>	<p>(2 - 討議 - 75)</p>
<p>具體的인 方法은 種目別 特性에 따라야 하고 서로 協議해서 決定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卽興的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共同委員會」에서 具體的인 것이 研究가 되어야 할 것임.</p>	
<p>(2 - 討議 - 81)</p>	
<p>訓練도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選拔戰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一方地域, 한 地域에서 하는 것보다는 往來하면서 選拔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임.</p>	<p>貴側의 修正案에서 서울과 平壤을 왔다 갔다 하며 한두 차례의 選拔競技를 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說明을 해주기 바람.</p>
<p>(2 - 討議 - 82)</p>	<p>(2 - 討議 - 81)</p>

우 리 側	北 側
<p>組織委員會에서 提示하는 T/O의 倍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은 問題가 있음. 왜 그러나 하면 團體競技에는 可能할 것이나 個人競技에는 특히 體級別 競技인 경우에 딱 한명씩 나가서 訓練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2, 3個月만 같이 訓練하면 實力差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問題가 됨.</p> <p>따라서 原則은 그렇게 定해놓고 나머지 그 人員數에 대해서 細部的으로 種目別로 協議를 해서 決定하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78~79)</p> <p>지금 貴側하고 우리하고 얘기한 것을 綜合해보면 조금 差異가 있는것 같음.</p> <p>訓練을 통해서 選手를 選拔한다, 訓練을 먼저하고 그리고 또 訓練하는 過程에서 選手들을 選拔한다는 것은 貴側이나 우리나라 똑같음.</p> <p>그런데 지금 記錄種目이라든지 採點制 勝負評價種目에는 異意가 있을 수가 없음.</p> <p>지금 貴側에서 南北이 서로 和解하자고 하는 마당에 어찌 選手끼리 싸울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였음.</p>	<p>共同訓練에 參加하는 人員數는 競技大會 組織委員會 參加 定員數 程度로 함. 지금 그 쪽 發議의 「가」인데, 「2의 가」인데 北에서도 定員數가 나오고 南에서도 定員數가 되니까 결국은 倍가 되는 셈임.</p> <p>여기 우리 두번째項에 「北과 南이 各其 競技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必要한 人員數를 協議하여 選拔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條項은 結局은 다르게 없음. 다 그런 것 豫見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78~79)</p> <p>選拔戰 理解를 똑똑히 하여야 되겠음.</p> <p>選拔戰이란 對決을 鼓吹하는 競爭心으로부터 出發한 北팀, 南팀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한번, 平壤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選拔戰이 아니라 北과 南選手가 共同訓練을 처음에 모아서 함.</p> <p>共同訓練을 하다가 監督・責任指導員의 訓練計劃에 의해서 訓練을 하면서 自體競技도 하고 檢閱競技도 하고 이런 競技들 進行함. 이렇게 하면서 選手를, 最</p>

우 리 側	北 側
<p>그렇기 때문에 選拔戰이라고 하는 形態를 통해서 選手를 選拔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2 - 討議 - 89)</p>	<p>終選手를 選拔한다 이것임. (2 - 討議 - 89)</p>
<p>南과 北이 지금 축구의 경우를 例로 드는 것이 좋겠는데, 20名을 뽑아서 訓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形態라도 게임을 한번 갖자는 것임.</p>	<p>축구를 이제 共同訓練을 해서 北과 南이 갈라 가지고 選拔戰을 한다하면 거기가 어떻게 競技를 組織해 보겠는가? 審判은 누구 세우며 「라인」線審은 누구 세우며 應援은 어떻게 하며 이게 문제임.</p>
<p>게임을 갖는데 그러면 南이 이기든 北이 이기든 이긴팀을 위주로 해서 진팀에서 어느 程度의 任員을 選手의 均衡을 깨지지 않게 吸收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임.</p>	<p>그래서 우리도 지금 研究한 것이 우리 團長同志가 얘기한 바와같이 具體적으로 말하면 選手를 選拔한다 하는것은 사람을 選拔하는 것임. 어느 選手, 사람을 選拔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選拔하는데 있어서는 팀워도 重要하고 北과 南이 對決을 피하면서 그 다음 또 北팀 對 南팀이다 이런걸 피하면서 하는 方法이 있음. 共同訓練段階로 이런 이걸 主張함.</p>
<p>그런데 지금 貴側의 主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게임하는 것을 보고, 아하 저 친구는 「센타포드」에 갖다 놓으면 제일 잘 하겠구나 또 저 친구는 「골키퍼」를 시키면 제일 잘하겠구나 해서 열한명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열한명을 그런 式으로 選拔을 하는데 그 열한명의 構成이 南과 北이 均衡을 잃지 않도록 配合을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2 - 討議 - 90)</p>	<p>貴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들어 보면 共同訓練을 해가지고 南과 北이 갈라져서 다시 게임을 해서 審判을 어디 이제 하늘에서 데려다 놓고 競技選拔戰을 한다</p>

우 리 側	北 側
<p>생각을 조금 달리해 보았으면 좋을것 같음. 왜냐하면 지금 貴側에서 말하는 것은 選拔한다 하면 이게 하나의 對決이다, 자꾸 對決을 延長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흘이건 한달이건 合同訓練을 하게되면 서로 南北韓의 選手들이 같이 어울려서 生活하다 보면, 用語上的 달랐던 것도 많이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情도 붙고 그래서 南과 北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親熟해질 것임.</p>	<p>는 소린데 이게 實踐的으로 不可能함. (2 - 討議 -91)</p> <p>결국은 訓練하면서 檢閱競技도 하고 訓練競技도 하고, 記錄競技도 하고 이 位置에다가 놓고 저 位置에다도 나보고 이렇게 해서 多樣하게 競技를 하면 그 코치들이, 監督들이, 이사람은 이런 位置때 더 正確하고 저럴때 더 좋다 더 具體的으로 하나 하나 이런 方法으로 하는 것이 具體的인 것이지 이제처럼 한두번 選拔된 그건 안됨.</p>
<p>그러한 분위기속에서 均衡을 깨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시합을 붙는다고 하게되면, 그것은 죽기 살기내기로 하는 시합보다는 實力發揮를 하는 이러한 選拔戰, 하나의 親善的인 競技로 될 것임.</p>	<p>예컨대 어느 競技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안되는 것임. (2 - 討議 -92)</p>
<p>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審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서로 南北間에 審判을 하게되며는 均衡이 깨지기 쉽게 되어 잘못 하면 公正하다 公正치 못하다는 논쟁의 여지도있기 때문에 第3國에, 第3國의 審判을 데려다가 볼 수도 있는 것임. (2 - 討議 -92 ~ 93)</p>	<p>選拔戰 自體를 우리가 대결로 말하는게 아님. 그것을 理解하여야 함.</p> <p>選拔戰 자체를 대결이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選拔戰 方法에서 어떻게 대결을 피하겠는가 이 얘기임.</p> <p>그럼 그 方法이 없는가? 方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p>

우 리 側	北 側
<p>만약에 우리 南北韓의 審判들 가지고서 그게 不公平하다 할 때 그런 方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좀더 우리가 자신있게 兩側의 審判들 가지고 이 選拔戰이나 評價戰을 우리가 해서 별로 지장이 없다면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種目別로 한번 檢討해 보는 것이 좋겠음.</p>	<p>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選手들을 選拔한다는건 個別的 技術이 있는 選手들을 選拔하는걸 의미하는 것임. 合同訓練 같은것도 한개의 方法인데, 合同訓練 過程에, 그쪽의 合同訓練 우리 共同訓練하는 過程에, 實例를 들어 축구라면 우리쪽에서도 20名 나가게 될 것이고 그쪽에서 20名 그럴 것인데 이때 10名씩 配合한다는 것임.</p>
<p>貴側이 選拔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對決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選拔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合同訓練을 한 마당에 서로 親熟해지고 그러니까 實力을 評價하는 立場에서도 한번 選拔戰을 붙여보자 이것임.</p>	<p>(2 - 討議 - 94)</p>
<p>이게 合同訓練 後 다 헤어져 가지고서는 서로 南과 北이 代表하는 팀간에 어느 한 쪽이 지면 아예 이걸 參加 못한다,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임.</p>	
<p>(2 - 討議 - 93 ~ 94)</p>	
<p>北쪽이 10名, 南쪽이 10名?</p>	
<p>(2 - 討議 - 94)</p>	<p>예, 이것이 한팀이 되는 것임. 訓練段階에서 저쪽도 한팀이란 말임. 指導員도 貴側에서 말하는 「코치」도 이쪽에 들,저</p>

우 리 側	北 側
<p>北쪽에서는 이 選拔戰 하더라도 섞어서 하자, 이 말씀인가?</p>	<p>쪽에도 들 되는 것임. (2 - 討議 - 94)</p>
<p>(2 - 討議 - 95)</p>	
<p>練習때는 70 % 나 80 % 밖에는 기량이發揮가 안된다는 것은 世界的으로 다 이미 알려져있는 아주 基本的인 學說임. 그러니까 이것이 相對方과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을 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問題가 되지 그걸 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共同的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하나의 同伴者的 그런 概念을 갖고 한다면 問題될게 하나도 없음.</p>	<p>예, 그게 그런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는 것임.</p>
<p>選拔戰을 하는 것이 아주 優秀한 選手를 뽑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選拔戰을 하는게 原則임.</p>	<p>어쨌든 北과 南間의 競技, 서울·平壤에서 그건 좀 피하자 이런 얘기임. 個別競技는 또 다름.</p>
<p>섞여가지고 한다면 제 實力發揮가 안되며 그건 뭐 틀림이 없는 사실임.</p>	<p>(2 - 討議 - 95)</p>
<p>(2 - 討議 - 96)</p>	<p>競技라는건 競爭意識 임. 競爭意識을 냈으면 그건 곧 무업니까? 그게 팀웍을 維持하는데서 상당한 問題로 됨.</p>
<p>合同訓練을 하다가 양쪽이 서로 팀웍을 維持해 가면서 選拔戰을 하면 그 選拔戰 自體가 하나의 親睦과 和解, 團合을 나누</p>	<p>競爭인데 어떻게 하면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데 이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자고 새겨두고 이렇게 했는데 …… 그런 衝突을 피하도록, 種目이 多樣하지 않습니까?</p>
<p>(2 - 討議 - 97)</p>	<p>(2 - 討議 - 97)</p>
<p>選手選拔問題에서 選拔戰을 처음에 해서 뽑는다 이것이 아니라 貴側에서 우리 意見을 接受해서 共同訓練을 한 다음 最終 選手를 選拔한다고 했는데 이점에 관해서</p>	<p>選手選拔問題에서 選拔戰을 처음에 해서 뽑는다 이것이 아니라 貴側에서 우리 意見을 接受해서 共同訓練을 한 다음 最終 選手를 選拔한다고 했는데 이점에 관해서</p>

우 리 側	北 側
<p>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라고 봄. (2 - 討議 - 97)</p> <p>用語上の 理解가 안되는게 있어서 그 걸 오늘 確實하게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 會議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음.</p> <p>記錄種目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採點制 勝負評價種目,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얼른 그 感이 머리에 안들어옴.</p> <p>그리고 「맞붙어 勝負를 가리는 種目」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것을 分明하게 概 念을 밝혀 주시려는 앞으로 會談進行에 도 움이 될 것 같음. (2 - 討議 - 102)</p>	<p>는 意見이 일치함. 그러나 共同訓練을 하다가 選拔戰競技를 하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가 이제 方法을 다시 研究하도록 했으면 함. (2 - 討議 - 98)</p> <p>球記錄種目は 타임, 말그대로 타임이 나오 는 種目競技임. 그걸 記種目이라고 하고 여기도 包含됨.</p> <p>採點制 種目は 體操, 그다음에 「다이빙」 이런 것을 念頭に 두는 것이고 맞붙어하 는 것은 주로 拳鬪, 레슬링, 유도, 유술등 임. (2 - 討議 - 102 ~ 103)</p>
<p>球技種目は 앞서 말한 거기다 넣지 않았는데 球技는 어디에 包含되는가? (2 - 討議 - 103)</p>	<p>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念頭に 두었는 가 하면 그것은 팀種目, 團體種目 이렇게 表現을 한 것임. (2 - 討議 - 103)</p>

사. 選手訓練

우 리 측	北 측
<p>① 種目別 訓練은 選手가 選拔된 種目부터 可及的 빠른 時期에 實施함. 訓練은 南北의 既存施設을 利用하여 相互往來하며 實施하되 必要할 때에는 第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음.</p>	<p>① 訓練은 種目單位로 北과 南을 오가면서 함.</p>
<p>② 選手訓練에 대한 細部事項은 雙方 合意에 따름.</p>	<p>② 訓練은 될수록 北과 南의 選手, 指導員들을 配合하는 原則에서 進行하도록 함.</p>
<p>(1 - 基調 - 28)</p>	<p>③ 訓練期間 種目別 北南代表들의 合意에 따라 外國遠征競技와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들을 進行할 수 있음.</p>
	<p>④ 訓練은 1989年9月부터 시작함.</p>
	<p>⑤ 訓練에 必要한 모든 條件은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責任지고 保障함.</p>
	<p>(1 - 基調 - 22)</p>
<p>① 合同訓練 期間中 參加選手는 交替할 수 있음.</p>	
<p>② 合同訓練은 1989年 10月부터 種目別로 始作함.</p>	
<p>③ 合同訓練은 南北의 既存施設을 利用하여 相互 往來하면서 實施하되 必要할 때에는 第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음.</p>	
<p>④ 合同訓練 實施에 따른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함. (2 - 基調 - 15~16)</p>	

우 리 측	北 측
<p>〈強化訓練〉</p> <p>①. 選手團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出戰時 까지 強化訓練을 實施함.</p> <p>②. 強化訓練은 南北을 往來하면서 實施함.</p> <p>③. 強化訓練에 관한 細部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基調 - 16)</p>	
<p>合同訓練을 10 月달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음. 왜냐하면 大學팀들간의 경기가 9 月달에 가장 많이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9 月달에 대개 일을 마쳐야 되므로 10 月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4)</p>	<p>10 月에 選手權大會 하는 것도 關係 안 하고, 좌우간 10 月에 있는 全國選手權大會 있는 것도 다 廢棄하고 9 月부터 그저 8 月까지 한 번 끝나면 共同訓練하기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4)</p>
<p>蹴球를 例로 들어서 엔트리 順대로 22 名을 뽑자면 우리 內部에서 選拔大會를 해가지고 뽑아야 하는데 그大會를 우리는 全國體育大會를 통해서 함.</p> <p>全國體育大會가 통상 10 月 1 日에 끝나니까 그래서 10 月부터 全國體典 끝나자마자 하자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2 - 討議 - 85)</p>	<p>우리가 이번에 北南唯一팀이 나가서 어느 때보다 좋은 成績을 꼭 發揚시켜야 되겠고 이것을 先次로 봐야지, 國內競技야 우리 自體로 좀 조절하여 조금 앞당겨 할 수도 있음.</p> <p>이건 우리 內部問題니까, 어디까지나 唯一팀이 나가서 좋은 成績을 발휘하자면 우리가 9 月달부터 팀이 構成되어 가지고 이 때부터 訓練計劃짜고 內容들 合意하여야 됨.</p>

우 리 側	北 側
<p>우리 內部에 各 加盟團體들의 競技計劃들이 대개 다 9月달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수는 없는 것임.</p> <p>그래서 그분들하고 相議를 해가지고서 貴側도 조금 뒤로 미루고 우리도 그것을 갖다가 調整할 수 있는지 한번 그 時日問題는 여기서 고집하지 않고 가서 相議를 해보겠음.</p>	<p>그걸 9月달로 앞당기라는 얘기임.</p> <p>(2 - 討議 - 85~86)</p> <p>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內部問題이기 때문에 問題는 어디까지나 第11次아시아競技大會를 目標로 하고있기 때문에 內部問題는 좀 調整할 수 있다는 생각임.</p> <p>(2 - 討議 - 86)</p>
<p>(2 - 討議 - 87)</p>	

아. 選手團 身邊安全保障

우 리 측	北 측
<p>雙方은 選手選拔戰 및 訓練을 위해 自己 側 地域에 들어온 相對側 選手團의 身邊安全과 歸還을 保障하는 「選手團 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8)</p>	<p>北과 南을 오가면서 共同訓練을 하는 경우 相對側 成員들에 대한 身邊安全擔保는 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하는 方法으로 保障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자. 選手團 經費

우 리 측	北 측
<p>①. 選手團 構成 및 出戰에 따른 經費는 選手 및 任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南北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p> <p>②. 選拔戰 및 訓練은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招請側에서 必要한 經費와 便宜를 提供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8)</p>	<p>① 共同訓練期間의 一切 費用은 訓練場所를 提供하고 있는 側에서 負擔함.</p> <p>② 共同訓練期間 外國遠征競技를 가게 되는 경우 一切 費用은 遠征競技準備를 시키다가 出發시키는 側에서 負擔함.</p> <p>③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를 하는 경우 一切 費用은 競技場을 내고 組織하는 側에서 負擔함.</p> <p>④ 唯一팀의 亞細亞競技大會參加와 關聯한 費用은 北과 南이 共同으로 負擔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차. 南北單一팀 推進機構 構成

우 리 측	北 측
<p>雙方은 單一팀 構成 및 參加問題를 具體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 함)를 設置・運營함.</p> <p>①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方案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 後 1個月 以內에 構成함.</p> <p>② 共同委員會는 雙方 올림픽委員會 및 競技團體 代表로서 各 10名 內外로 構成함.</p> <p>③ 共同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 서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함.</p> <p>㉠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p> <p>㉡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p> <p>㉢ 大會 開催期間中 열리는 各種 會議 參加代表 및 大會審判選定에 관한 事項</p> <p>㉣ 各種 文化藝術行事 參加에 관한 事項</p> <p>㉤ 其他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 事項</p> <p>④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해 서울・平壤에 共同事務局을 각기 設置함.</p> <p>雙方은 適正數의 連絡人員을 共同事務局에 각각 派遣・常駐시키고 直通電話를 架設・運用함. (1-基調-28~29)</p>	<p>〈唯一팀을 위한 共同常設機構〉</p> <p>① 唯一팀의 共同訓練, 唯一팀選手選拔, 北南來往 競技大會 參加事業의 組織指揮 및 管理, 北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과 國際 및 亞細亞體育機構들, 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의 連繫를 말아보게 될 共同事務局을 내음.</p> <p>② 共同事務局의 名稱은 本會談에서 합의 되는 唯一팀名稱을 덧붙여 부름.</p> <p>③ 共同事務局에서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派遣하는 共同事務局長 2名과 必要한 部署 및 成員들을 둠.</p> <p>④ 共同事務局의 事務室은 板門店 中立國 監督委員會 休憩室에 정하며 雙方이 協議하여 옮길 수 있음.</p> <p>⑤ 選手團은 共同訓練期間 北南으로 오갈 때에는 共同事務局이 특별히 發給하는 證明書를 쓰도록 함.</p> <p>(1-基調-22~23)</p>

카. 其他事項

우 리 側	北 側
	<p>唯一팀의 運動服, 機材, 携帶品, 裝具類 등의 形式, 색깔, 標識 등은 共同事務局에서 決定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p>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할 唯一팀의 出發과 到着地點은 民族的 和解와 統一意識을 높여주도록 北과 南에 公平하게 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1 - 基調 - 23)</p>

〈附 錄〉

雙方 提案 및 合意書(案)

1.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

가. 우리側 提案文(第1次 豫備會談)

첫째, 本會談 名稱問題

本會談이 雙方 總理를 비롯한 高位當局者들이 마주 앉아 會談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히 政治·軍事的 問題만으로 局限해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相互間의 交流·協力과 信賴構築 등 多様な 懸案問題들이 討議되어야 한다는 點에서 그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으로 하되, 名稱問題를 가지고 오랜 時間을 浪費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雙方立場을 다 함께 考慮하여 「南北總理會談」으로 決定하는 것도 無妨하다.

둘째,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軍參謀總長級을 包含하는 7名의 代表로 構成하고 40名의 隨行員과 50名의 報道陣을 帶同하도록 한다.

셋째, 本會談 開催日時 및 場所問題

- ① 本會談은 豫備會談 終結以後 1個月以內에 開催한다.
- ② 本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되 第1次 本會談은 서울에서, 第2次 本會談은 平壤에서 開催한다.

넷째, 本會談 議題問題

- ① 相互誹謗·中傷 中止問題
- 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問題
- ③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問題
- ④ 軍事的 信賴構築問題
 - 南北高位軍事當局者間의 直通電話架設

-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 및 平和的 利用
- 軍人士의 相互交流
- 大規模 訓練의 事前通報 및 參觀招請

⑤ 南北頂上會談 開催問題

⑥ 기타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

다섯째, 本會談 運營節次問題

- ① 本會談의 進行은 非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雙方合意에 따라 公開로도 할 수 있다.
- ② 儀典問題는 雙方 實務代表間의 別途接觸을 통해 協議·解決한다.
- ③ 其他 會議記錄, 往來節次, 身邊安全, 便宜提供 등 會談運營節次問題는 過去 南北對話의 先例를 準用한다.

나. 北側 提案文 (第1次 豫備會談)

1. 會談名稱

當面한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討議·解決하기 위한 北南高位級會談은 雙方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이하 會談이라고 함)으로 한다.

2. 會談時日

會談은 本 豫備會談이 끝난 때로부터 1個月안에 始作한다.

3. 會談場所

會談場所는 平壤과 서울로 하되 잇바꾸어 가면서 정하며 第1次 會談은 平壤에서 한다.

4. 會談議程

會談議程은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對하

여」로 한다.

5. 會談代表團 構成

代表團은 各其 7名으로 構成하며 團長은 總理가 한다.

代表團에는 軍實權者를 2名程度 包含시킨다.

6. 會談隨員과 取材記者

會談保障을 위한 隨員은 各其 20名으로 한다.

會談取材記者는 50名으로 한다.

7. 會談形式

會談은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할 수 있다.

8. 合意書採擇

合意事項은 雙方이 署名한 合意書로 確認하되 合意書를 採擇할 때에는 各其 두통씩 作成하여 總理가 署名한 다음 한부씩 交換한다.

9. 會談記錄

會談記錄은 速記, 錄音, 錄畫 등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10. 會談報道

會談報道는 各其 便利한대로 하며 共同報道를 할 수 있다.

11. 會談場標識

會談卓이나 會談場에는 어떤 標識도 하지 않는다.

12. 身邊安全擔保

雙方은 會談을 위하여 相對側을 來往하는 人員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하는 總理名義로 된 身邊安全保障 覺書를 交換한다.

相對側 地域을 來往하는 人員들은 自己側 總理가 發給한 身分證明書를 持參한다.

13. 板門店 通過秩序

代表團成員들의 板門店 通過節次는 北南對話의 前例에 準하여 한다.

14. 滯留日程

相對側 地域에서의 滯留日程은 3泊4日로 한다.

必要的한 경우에 合意에 따라 滯留期間을 調節할 수 있다.

15. 便宜保障

自己側 地域을 來往하는 相對側 人員들에 대한 便宜保障은 招請側이 責任 지고 保障하며 招請받은 側은 招請側의 案内에 따른다.

16. 直通電話

會談事業을 保障하기 위하여 이미 架設한 平壤과 서울사이의 直通電話線을 利用한다.

2. 第 11 回 北京 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南北體育會談

가. 우리側

(1) 第 11 回 北京 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方案(第 1 次 會談)

첫째, 選手團의 呼稱은 國際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로마字 「KOREA」로 表記하고 우리말로는 「南北單一팀」으로 表記한다.

둘째, 選手團의 團旗는 흰색 바탕에 綠色 韓半島地圖를 넣고 그 아래에 로마字「KOREA」를 表記한다.

셋째, 選手團의 團歌는 우리 民族의 民謠인 「아리랑」으로 한다.

넷째, 選手團 構成

1.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서 맡고 副團長은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는다.
2. 任員 및 選手構成은 OCA 憲章 및 該當 國際競技聯盟規則에 따른다.
3.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이 監督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되 具體的 任員數는 雙方合意에 따라 定한다.

다섯째, 選手團의 團服

1. 團服의 디자인은 雙方 專門家들의 諮問을 얻어 決定한다.
2. 團服의 標識는 雙方이 合意한 團旗 및 選手團 呼稱에 따름을 原則으로 한다.
3. 團服의 製作經費는 共同負擔으로 하되 雙方 合意에 따른다.

여섯째, 選手選拔은 南北의 區別없이 種目別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1. 全 種目에 대해 選手를 選拔한다.

2. 選手團選拔을 위해 交換競技를 實施한다.
3. 選手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 以上 實施한다.
4.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한다.
5.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雙方間에 協議·決定한다.

일곱째, 選手訓練

1. 種目別 訓練은 選手가 選拔된 種目부터 可及的 빠른 時期에 實施한다. 訓練은 南北의 既存施設을 利用하여 相互往來하며 實施하되 必要할 때에는 第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다.
2. 選手訓練에 대한 細部事項은 雙方 合意에 따른다.

여덟째, 雙方은 選手選拔戰 및 訓練을 위해 自己側 地域에 들어온 相對側 選手團의 身邊安全과 歸還을 保障하는 「選手團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한다.

아홉째, 選手團 經費

1. 選手團 構成 및 出戰에 따른 經費는 選手 및 任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南北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選拔戰 및 訓練은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招請側에서 必要한 經費와 便宜를 提供한다.

열째, 雙方은 單一팀 構成 및 參加問題를 具體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 함)를 設置·運營한다.

1.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方案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 後 1個月 以內에 構成한다.
2. 共同委員會는 雙方 올림픽委員會 및 競技團體 代表로서 各 10名 內外

로 構成한다.

3. 共同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가.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나.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다. 大會 開催期間中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 代表 및 大會審判 選定에 관한 事項

라. 各種 文化藝術行事 參加에 관한 事項

마. 其他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 事項

4.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해 서울·平壤에 共同事務局을 各其 設置한다. 雙方은 適正數의 連絡人員을 共同事務局에 各各 派遣·常駐 시키고 直通電話를 架設·運用한다.

(2) 選手選拔·訓練 및 選手團 構成問題와 關聯한 折衷案(第2次 會談)

1. 選手選拔

가. 全 種目に 대해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한다.

나. 選手選拔을 위해 合同訓練을 實施하며 選拔戰을 통해 大會에 參加할 選手를 選拔한다.

다. 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 以上 實施한다.

라.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한다.

마.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다.

2. 合同訓練

가. 合同訓練에 參加할 選手選拔은 南北 各其 決定토록 하며 그 人員數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定하게 될 競技參加 定員數 程度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協議·調整할 수 있다.

나. 合同訓練 期間中 參加選手는 交替할 수 있다.

다. 合同訓練은 1989年 10月부터 種目別로 始作한다.

라. 合同訓練은 南北의 既存施設을 利用하여 相互 往來하면서 實施하되 必要할 때에는 第3의 場所·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다.

마. 合同訓練 實施에 따른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다.

3. 選手團 構成

가. 大會에 參加할 選手·任員 등 選手團의 構成은 豫備申請 마감일인 1990年 6月 22日 前까지 完了한다.

나. 選手 및 任員構成은 OCA憲章 및 該當 國際競技聯盟規則에 따른다.

다.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서 맡고 副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는다.

라.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의 監督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되 具體的 任員數는 雙方 合意에 의해 定한다.

마. 大會에 參加할 選手團은 가능한 限 南北間에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

4. 強化訓練

가. 選手團이 構成된 때로부터 大會出戰時까지 強化訓練을 實施한다.

나. 強化訓練은 南北을 往來하면서 實施한다.

다. 強化訓練에 관한 細部事項은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다.

나. 北 側

(1)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方案 (第1次 會談)

1. 唯一팀 名稱

唯一팀 名稱은 우리말로 <고려선수단>이라고 하며 英文字로 <KORYO>로 쓰고 略字로는 <KRY>를 使用하게 한다.

2. 唯一팀기발

흰색바탕에 黃土色 우리나라 地圖를 그려넣고 그 아래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KORYO>라고 쓴 기발로 한다.

3. 唯一팀노래

아리랑으로 하되 1920年代 북쪽과 남쪽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唯一팀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

1) 選手選拔原則

- ①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②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 ③ 北과 南은 될수록 唯一팀에 種目別로 北과 南의 選手 및 指導員들을 함께 包含시키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2) 選手選拔方法

(1) 唯一팀構成 準備段階의 共同訓練에 參加할 選手選拔

- ① 北과 南이 各其 決定하도록 한다.
- ② 모든 種目別 選手選拔은 北과 南이 各各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競技參加定員數 程度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必要한 人員數를 協議하여 選拔하도록 한다.
- ③ 對象訓練을 必要로 하는 種目에 대하여서는 該當種目 北南代表들이

따로 協議하여 選手數를 決定하고 選拔하도록 한다.

(2) 唯一팀選手選拔

- ① 記錄種目 境遇에는 共同訓練期間 여러차례 進行한 選拔競技의 記錄을 綜合적으로 考慮하면서 最終選拔競技記錄을 위주로 하여 選拔한다.
- ② 採點制 勝負評價種目は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이 함께 參加하는 公開招請競技를 進行하여 選拔한다.
- ③ 맞붙어 勝負를 가르는 種目들은 共同訓練期間 實力과 이미 進行한 選手들의 國內外競技戰績을 考慮하여 該當種目の 北南代表들의 協議의 方法으로 가능한 北南의 均衡을 保障하는 方向에서 選手들을 選拔한다.
- ④ 北南 어느 한측에서만 種目を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측이 該當種目に 대하여 唯一팀으로 出戰하도록 한다.
- ⑤ 한개의 細部種目に 2名의 選手가 參加하는 경우에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包含하도록 한다.

5. 指導員 및 保障成員

- ① 共同訓練段階에서 팀種目들에 한하여 北과 南은 種目當(男女區分된 種目は 男女種目) 各其 2名씩의 指導員을 選拔하며 個人競技種目에서는 北南이 均衡을 維持하면서 必要한 數만큼 選拔한다.
- ② 競技大會에 參加하는 指導員數는 亞細亞競技大會, 技術規程에 準하여 北南間의 指導員數의 均衡을 維持하도록 한다.
- ③ 保障成員(의사, 안마사, 연구사, 기재관리공, 배수리공, 요리사 등)들의 選拔과 그 數는 따로 討議·合意하여 執行한다.

6.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 選拔時日

- ① 共同訓練段階의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選拔은 늦어도 1989年 8月까지 끝내도록 한다.

- ② 競技大會에 參加하게 될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들의 最終選拔은 팀 種目は 1990年 5月까지, 個人競技種目は 1990年 7月까지 끝내도록 한다.

7. 訓練

- ① 訓練은 種目單位로 北과 南을 오가면서 한다.
- ② 訓練은 될수록 北과 南의 選手, 指導員들을 配合하는 原則에서 進行하도록 한다.
- ③ 訓練期間 種目別 北南代表들의 合意에 따라 外國遠征競技와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들을 進行할 수 있다.
- ④ 訓練은 1989年 9月부터 시작한다.
- ⑤ 訓練에 必要한 모든 條件은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責任지고 保障한다.

8. 競技大會에 參加할 選手團指揮部

- ①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하는 選手團指揮部에는 北과 南에서 各其 選出되는 共同團長 2名을 두어 選手團을 管理하고 代表하도록 한다.
- ② 副團長, 事務長도 같은 方法으로 2名씩 둔다.
- ③ 選手團과 關聯되는 重要한 問題에 대하여서는 共同團長, 共同副團長, 共同事務長들이 合意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 ④ 選手團에는 總指揮부와 그 아래에 種目別 指揮部를 둔다.

9. 唯一팀을 위한 共同常設機構

- ① 唯一팀의 共同訓練, 唯一팀選手選拔, 北南來往 競技大會 參加事業의 組織 指揮 및 管理, 北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과 國際 및 亞細亞體育機構들, 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의 連繫를 말아보게 될 共同事務局을 내온다.
- ② 共同事務局의 名稱은 本會談에서 合意 되는 唯一팀名稱을 덧붙여 부른다.
- ③ 共同事務局에서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派遣하는 共同事務局長 2名과 必要한 部署 및 成員들을 둔다.

- ④ 共同事務局의 事務室은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休憩室에 정하며 雙方이 協議하여 옮길 수 있다.
- ⑤ 選手團은 共同訓練期間 北南으로 오갈 때에는 共同事務局이 특별히 發給하는 證明書を 쓰도록 한다.

10. 費用

- ① 共同訓練期間의 一切 費用은 訓練場所를 提供하고 있는 側에서 負擔한다.
- ② 共同訓練期間 外國遠征競技를 가게 되는 경우 一切 費用은 遠征競技準備를 시키다가 出發시키는 側에서 負擔한다.
- ③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를 하는 경우 一切 費用은 競技場을 내고 組織하는 側에서 負擔한다.
- ④ 唯一팀의 亞細亞競技大會參加와 關聯한 費用은 北과 南이 共同으로 負擔한다.

11. 身邊擔保

北과 南을 오가면서 共同訓練을 하는 경우 相對側 成員들에 대한 身邊安全擔保는 身邊安全保障覺書を 交換하는 方法으로 保障한다.

12. 其他

- ① 唯一팀의 服裝, 運動服, 機材, 携帶品, 裝具類 등의 形式, 색깔, 標識 등은 共同事務局에서 決定한다.
- ② 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할 唯一팀의 出發과 到着地點은 民族的 和解와 統一意識을 높여주도록 北과 南에 公平하게 정한다.